마약류 중독자 22인의 극복체험수기

후회와 눈물 그래도 희망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엮음

약물에 의한 쾌락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허상이 되고 수천, 수만 배의 고통과 좌절, 아픔과 슬픔, 그리고 불행이 되어 되돌아 왔다. 마약류에 의존하고 중독된 사람들에겐 특별한 약이 없다. 병이라면 병이겠지만 그 병에는 치료약이 없다. 수술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마약에 취해서만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다! 이것도 일종의 병인데 왜 치료약이 없겠는가?

비즈엠디

마약류 중독자 22인의 극복체험수기

후회와 눈물 그래도 희망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엮음

약물에 의한 쾌락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허상이 되고 수천, 수만 배의 고통과 좌절, 아픔과 슬픔, 그리고 불행이 되어 되돌아 왔다. 마약류에 의존하고 중독된 사람들에겐 특별한 약이 없다. 병이라면 병이겠지만 그 병에는 치료약이 없다. 수술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마약에 취해서만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다! 이것도 일종의 병인데 왜 치료약이 없겠는가?

비즈엠디

서문

'2005 마약류 의존 체험 수기'를 공모했을 때, 내부에서 조차 "응모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지난 90년대 말, 공모전에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해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간 마약류 의존자 사회복귀시설 송천쉼터의 운영 및 NA모임 결성과 아울러 지난 10년간 전국의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프로그램에서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등 수많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중한 체험담이 응모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응모한 체험담에는 마약류 사용에서부터 단약과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갈등, 어려움, 재발의 실수, 고통, 마약류 폐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부정하는 공황상태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과 반드시 재활하겠다는 희망의 절규가 가득합니다.

마약류 경험자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수기 한 편 한 편을 읽으며 다시금 마약류의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중독자를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류 안전국가라고 하지만, 마약류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기는 단지 일부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마약류는 부정적인 용어의 대명사는 될지언정, 마약류에서 벗어나고자 평생을 노력해야 하는 마약류 경험자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형제며 이웃입니다. 마약류의 폐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을 나눠준다면 중독자들은 정상인과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약류 사용자는 환자이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용자는 빨리 발견하여 치료재활프로그램을 받게 한다면 마약류로 인한 고통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사용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다양한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프로그램이 함께 한다면 새 삶에 대한 희망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2005 마약류 의존 체험 수기 공모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은 공모전 수상작품의 개인정보를 노출되지 않게 조정하고 일부 문장을 가다듬어 마약류정보라는 이름으로 그 폐해를 덧붙여 한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일반 시민과 청소년에게 마약류 의존자의 재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고 마약류로 고통 받고 있는 경험자들과 그 가족에게는 재활의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수기 공모에 적극 응모해주신 분, 수기 공모전에 참여토록 적극 홍보해주시고 독려해주신 분, 심사를 해 주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무처 직원과 이 책 발간에 힘써주신 (주)비즈엠디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김 명 섭

목차

서문 4

1. 슬픈 기억속의 악취

얻은 것과 잃은 것 / 김일곤 13

지울 수 없는 상처 / 이영신 **금상 수상작** 21

본드 '중독' 이라는 불치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 안구영 27

약물 중독을 알고 / 변호영 33

Last life / 김용운 37

마약류정보 환각흡입물질(흡입제) 45

2. 유혹의 사슬

잊혀진 계절 / 양근식 **은상 수상작** 51

중독에서 단약 회복으로 가는 길섶에서 / 박우혁 61

마약과 악연의 사슬 / 박주현 **은상 수상작** 67

단약을 성취하는 그날을 위해 / 홍혁진 75

이젠 승리자가 되리 / 백영우 83

마약류정보 대마초 90

3. 수렁 속에서도 희망을

마약은 나의 인생 모두를 빼앗아 갔다 / 문상현 95

혼자가 아니야 / 윤호섭 99

아름다운 화단 / 유목인 **대상 수상작** 107

수렁 속에 희망을 / 정영석 119

살만할 가치가 있는 세상 그리고 다시 일어서며 / 김용순 125

유혹의 속삭임과 처절한 싸움 / 최수광 137

아직도 시련은 남았지만 / 음국인 143

마약류정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49

4. 그리고 다시 일으서며

후회로 채워진 과거 / 정덕영 **은상 수상작** 155

서른 살의 평범한 여자이고 싶다 / 박희진 167

순간의 쾌락과 인생을 바꾸지 마십시오, 절대! / 우형주 177

내 자신이 그들을 버렸다 / 홍범규 183

마약과 함께한 지난날 / 임진성 189

마약류정보 기타 남용 물질 19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지부/ 정부지정 치료기관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소

1

슬픈 기억속의

악취

얻은 것과 잃은 것

– 김 일 곤

호기심과 반항심으로 똘똘 뭉쳐있었던 나의 십대시절을 돌이켜 보려고 한다.

다른 이들은 이 시기를 사춘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물론 나의 삶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 되었다면 이와 같은 생각을 결코 하는 일은 없었겠지만 말이다.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나는 흔히 남들이 통과의례로 겪는 평범한 사춘기는 아니었다. 순간의 쾌락을 얻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악마와 거래하던 무지하고, 바보 같은 시절이었다. 그때 나는 흔히들 말하는 불량청소

년이었다.

요즘에는 일진이라는 말도 쓰고 있지만, 나는 내가 왜 그런 불량청소년으로 분류 되었는지 스스로 의아함을 느끼면서 그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불량청소년' 으로 백안시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이해 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내 눈치를 보며 슬슬 피하는 또래들을 보면서 느끼는 우월감과 자만이 나의 잘못된 선택을 부추겼는지도 모른다.

나의 유년 시절은 참으로 외로웠다. 그리고 불만투성이였다. 내가 필요로 한 것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 줄 수 있는 사람과 그런 불만들을 함께 토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참으로 즐거웠다. 주위로 부터는 못된 녀석들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함께 어울리는 그 순간들을 행복하게만 받아드리고 싶었다.

우리들은 어른들의 생활과 모습들을 동경하기도 했다. 어른들이 취하는 모습들을 따라하는데 한 치의 두려움과 망설임도 없이 행동으로 옮겼다.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며, 여자들과 함께 어울려 어른이 다된 양 어깨에 힘을 주고 휩쓸려 다녔다. 외롭고 불만투성이였던 나에게 행복감과 즐거움을 안겨주던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날까봐, 나를 따돌릴까봐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대담해지려 무던히도 애를 썼다.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숨어 피워대던 담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은 무서운 것이 없었다. 결국에는 담배를 입에 물고 거리를 활보하게까지 되었다. 그때 내 나이는 십대에 불과했다.

담배가 떨어지면 지나가던 어른들에게 담배를 요구했고, 돈이 없으면 돈을 요구했다. 불량스러운 그 행동, 그 몸짓 하나까지도 멋스럽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으니까 가능했다. 하지만, 내가 담배를 피우고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게 된 진짜이유는 어렵사리 친하게 된 그 친구라는 녀석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 무리에서 나만 튀는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나를 받아주지도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술집을 전전했고, 여자들과의 애정행각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여자들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평가될 정도였다. 그러나 나의 모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무서운 호기심이 나를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우리들에게는 선배가 있었다. 학교 선배도 있었고, 동네 선배도 있었고….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생이고, 마리아의 기둥서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배라는 존재는 거의 신격화 되어 있었다. 그런 선배들이 은밀한 의례행위로 사용하던 것이 있었다.

"본드"

나와 나의 친구들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왜 형들이 저걸 하고 있나? 의아해 할 정도로….

그러나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었던 선배들의 의례행위라면 결코 우리도 아니 나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본드의 냄새를 맡아보게 되었다. 그런데 좋다는 감정은 느낄 수는 없었다. 머리만 아플 뿐이었다. 입에서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나는 집에 돌아와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배가 고픈 척을 했었고, 별로 당기지 않는 김치를 한가득 입에 베어 물고 먹었다.

그렇게 나의 첫 경험의 순간이 지나간 것이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본드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에 하면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 좋으니까 선배들도 저렇게 하는 거겠지!"

사용횟수는 계속 늘어가기만 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 역시도 나와 같이 온종일 그것을 생각했고, 우리는 삼삼오오 모여 일일행사처럼 본드에 취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자 나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니 아직은 어린 나이에 느낄 수 없었던 해방감과 쾌감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탐닉은 계속되어갔다. 이것이 중독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가는 것이라는 것은 꿈에서 조차 생각해보지 못했고, 그 순간 느끼게 되는 그 기분을 즐기는데 만족하기만 했었다.

그러던 중, 나를 포함하여 친구 몇몇이 본드 냄새를 맡다가 경찰관에게 잡힌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들은 꿀밤을 한 대씩 맞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야단만 듣고서 파출소를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오히려 나를 대담하게 만들어 갔다.

"그래, 어차피 이거 하다가 잡혀도 그냥 한 소리 듣고 나오면 되는 거지 뭐!" 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한 경험이 된 것이다.

그 후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도 본드를 찾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또는 기분이 좋아도 본드를 찾을 정도까지 되어 버렸다. 나의 사고의 모든 초점은 본드 냄새를 맡아서 느끼는 그 쾌감만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쾌감을 안겨주는 약물의 맛을 보게 된 나는 또 다른 약물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 녀석이 가지고 온 대마초와 필로폰. 말로만 듣던 그런 것을 어린 나이에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이야.

"이걸 하면 더 좋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나는 더욱더 중독자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와 법은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나의 이런 약물사용은 진작부터 불법적인 행위였고, 계속되

는 나의 행각에 법과 가족들은 더 이상 수수방관만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십대의 나이에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회와 떨어져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참으로 우매한 사람이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안겨준 가족들이 미웠고, 사회와 법이 저주스러웠다. 그랬기에 더욱 더 보란 듯이 약물을 사용했다. "봐라!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다!" 라고 외치면서….

하지만, 이런 나에게 남은 것은 사랑도 아니었고, 관심도 아니었다.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져갔고, 결국에는 수많은 전과와 병들어 약해진 몸 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내 나이 어느덧 36세, 약물을 처음 사용한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그 20년 동안 내가 느꼈던 쾌감과 즐거움과 행복감은 얼마나 컸을까? 높은 담장 안에서 살며 잃어버린 나의 청춘의 대가로 충분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이 20년이라는 세월동안을 나를 힘들게 하였다. 아니 앞으로도 나는 계속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 조심스러운 심정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 순간만 방심하거나 자만한다면 나는 다시금 약물 앞에 한 없이 무력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 갈 테니까 말이다.

많은 약물남용자와 중독자들이 생겨나고 있을 테고, 또한 많은 중독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

잃어버린 나의 지난날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안정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 지난날의 모습들이 얼룩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체 인생도 얼룩으로 물든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얼룩진 경험을 통하여 더욱 성숙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더욱 멋진 삶을 이루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나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약물이 주는 쾌감과 즐거움만을 원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지를 아직은 모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약물중독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약물과의 힘든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감이 지나쳐 자만심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다.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약물에 취해 중독자의 모습으로 살기 싫다는 마음과 비싼 대가를 치룬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

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약물이 주는 쾌감과 유혹을 떨쳐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이지, 약물이 아니기에….

약물이 주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가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웃는 모습을 원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마지막으로 나를 비롯하여 약물 의존자 모두가 잊고 있는 한 마디를 기억한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며,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우리들은 행운을 준다는 그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얻기 위해 정말이지 많은 세잎 클로버를 짓밟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

—이영신

벌써 10년이 지났다.

매일 지겹도록 싸우던 아빠, 엄마.

숨 막히게 답답했던 학교.

그 모든 것에서 도망치듯 엄마의 지갑에서 몇 만원을 훔쳐내 가출을 했었고, 며칠을 배회하다 결국 대문 하나 사이로 수 십 개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쪽방촌에 숨어들었다.

화장실 하나 수도꼭지 하나 제대로 성한 곳이 없던 곳.

옆집 사람의 기침소리, 발자국 소리마저 낱낱이 들리던 그곳.

그 곳에서 나는 정화를 만났다.

바로 옆방에 살던 정화는 자신의 친구와 삼 개월 전에 집을 나왔다고 했고 우리는 나이가 같아서였는지 서로 의지할 곳이

없어서였는지 몇 번 마주치지 않고도 금새 친구가 되었다.

서로 방을 오가며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쩌다 돈이 생기는 날이면 라면이라도 끓여 서로를 불러 함께 나누어 먹었다.

정화의 방에서 자주 눈에 띄던 검정색 비닐봉지. 그리고 정화의 입에서 나던 이상한 냄새로 나는 이미 정화이가 본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감했었지만 그것이 외롭던 내게 생긴 친구를 모르는 척 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정화의 친구가 집에 들어갔고 정화와 나는 방 하나를 빼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기다렸다는 듯 정화는 내 앞에서 본드를 하기 시작했고. 검은색 봉지가 정화의 입에서 나풀거리기 시작하면 정화는 다른 사람이 되어 갔다. 무엇이 좋은지 실실 웃다가 울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으며 보이는 데로 부수고 던지기도 일쑤였다.

그런 정화가 무섭고 두려워 몇 번이나 말리고 본드도 숨겨 보았지만 정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내게도 본드를 권하기 시작했다.

"야! 내가 그래도 니 친군데 나쁜 거 하라고 하겠냐? 이거 한 번 해봐라. 생각하기 싫은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기분도 엄청 좋아져. 술 마시는 것보다 백배는 더 좋다니까." 라고 말하며 정화는 내게 검은 봉지를 내밀었다.

몇 번의 망설임과 고민 끝에 나는 자포자기 하듯 검정 봉지를 받아들었고, 정화가 가르쳐 준대로 해보았다.

매캐한 본드 냄새가 나의 목을 따갑게 하고 곧 머리가 어지러워져 봉지에 입을 때려는 순간 정화는 자신의 손으로 봉지를 다잡아 나의 입과 코에 대주었다.

수 십 번의 숨을 반복하는 순간. 아프던 목과 어지럽던 머리는 온데 간 데 없어졌고 정말 술을 마신 듯 알딸딸한 기분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가출이었지만 집과 학교에 대한 걱정,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막막함,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본드는 그런 모든 근심들을 잊게 해주었다. 그렇게 나는 본드 중독자가 되었다. 환각과 환상의 나락 속으로 나는 점점 추락하고 있었고 결국 본드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든 날이 시작 되었다.

친구들이 찾아와 주던 몇 푼의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우리는 본드를 살 돈이 모자라 식사를 포기하는 날이 점점 늘어갔으며,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는 동안 두통과 불면증은 점점 심해져 왔고 정화와 나의 몸무게는 10kg 이상씩 줄어 갔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미 환각의 늪에 깊이 빠진 우리를 건져낼 수 없었다.

친구들마저 우리의 본드 흡입 사실을 알고 점점 찾아오는 횟수를 줄여 갔지만 우리는 본드를 끊기는커녕 본드를 살 돈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중년의 아저씨, 내 또래의 학생 등 아무나 붙잡고 앵벌이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라

도 본드를 살 수 있는 돈이 구해지면 우리는 만족해 했다.

본드를 사지 못하는 날은 쪽방 버너에 꽂혀져 있는 부탄가스를 흡입하기도 했으며 약국을 돌며 산 각성제 수십 알을 먹기도 했다.

불안과 근심속에 맑은 맨정신으로 깨어 있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했다. 심한 우울증이 반복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본드를 흡입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 했다.

매일 같은 생활의 반복. 자신이 아닌 무언가에 의지해 환각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우리에게 삶은 더 이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고, 결국 정화는 내가 잠든 사이 본드를 흡입한 환각 상태 속에서 깨진 유리병으로 손목을 그었다.

뚝뚝뚝 흘러내리던 검붉은 피를 보며 정화는 울고 있었고 다행히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에 일어났던 나는 정화를 말릴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정화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고 살기 싫다는 말을 반복하며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나는 그런 정화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결국 얼마 후 정화가 다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보고 옥신각신 하는 도중 날카로운 모서리에 이마가 심하게 찢기는 사고가 나고야 말았다.

마치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피에 나는 너무도 놀라고 흥분해 내게 용서를 구하는 정화의 눈물을, 함께 병원에 가자는 정화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한 채 수건으로 이마를 감싸고 홀로 쪽방을 나와 응급실로 향했다.

20바늘을 넘게 꿰매야 했던 상처.

병원비가 없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그 길로 달려온 엄마의 손에 이끌려 1년 정도의 가출생활을 끝마치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후 얼마동안도 심한 우울증과 금단현상을 겪었지만 직장마저 그만두고 나를 보살펴 주었던 엄마의 정성과 정신과 치료로 안정을 되찾았고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에서야 그 쪽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정화는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고 나는 다시는 정화를 볼 수 없었다.

현실을 피해서 잠시나마 환각을 즐기고 싶어 했던 나의 어리석은 선택은 참으로 많은 것을 앗아갔다. 건강하던 나의 육체를 우울증과 두통에 시달리게 만들었으며 집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10년이란 시간동안 나는 대부분의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본드를 끊고 얼마가지 않아 우울증과 두통은 점점 사라졌고, 늦게나마 검정고시로 학업을 마쳤으며 죄스러운 마음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들도 나를 받아 들였다.

하지만 찢겨진 스무 방울의 상처는 아직도 나의 이마에서 생생히 살아있다.

그것도 함께 어린 날.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날.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 믿고 의지했던 소중했던 친구를 나는 그렇게 잃고야 말았다.

창백하리만큼 하얗던 얼굴.

검고 큰 눈동자가 너무도 선해 보였던 정화를 나는 본드와 함께 내 열여덟에 묻어야만 했다.

한번만 더 말렸다면, 나라도 환각의 늪 속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정화와 나는 지금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좋은 친구로 남았으리라.

나처럼 지금은 잘 살고 있으리라 믿고 또 믿지만…. 가끔 거울 속 내 찢겨진 상처를 볼 때마다 정화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되어 내게 손짓한다.

본드 '중독'이라는 불치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안 구 영

본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83년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우리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나보다 한살이 많은 친구가 본드를 봉지에 짜서 흡입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아 넘겼지만, 일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결국 나도 그 친구의 꾐에 넘어가 본드를 시작하게 되었다.

옳지 않은 것이란 걸 알면서도 막 사춘기적인 반항심이 생기던 터라 더 자주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그 친구는 오히려 본드를 끊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려 노력한 반면, 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법을 알지 못했다.

중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후 상급학교의 진학을 포기하고 사

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본드흡입의 흔적을 감추었지만 그 정도가 심해져만 갔다. 처음엔 한 두 시간 정도 하던 것이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으로 늘어났고, 본드를 한 다음날은 지각을 한다거나, 출근을 하지 못했고, 또 횟수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이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늘어 갔다.

이로 인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도 나의 본드흡입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만 만나자며 헤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거나 몇몇 남아있던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멀리 했다. 본드를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간섭 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다니던 공장에서도 내가 본드를 한다는 사실을 감추려 했지만 함께 모여서 공동작업을 해야 하는 특성상 입에서 풍기는 본드냄새를 들키고 난 후에는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본드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강렬해서 쉽게 유혹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몸과 마음도 점차 황폐해져 갔으며, 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잃은 후였다. 내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 할 때 나를 재기할 수 없는 불구자로 만들고 있었던 본드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었으니….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꼬리가 길면 아무리 몰래 하는 일이라도 들통이 나기 마련인지 결국 구속이 되면서 가족들 모두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맞벌이로 직장에 다니셨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비행에 신경을 쓸 틈이 없으셨고, 그저 봉제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줄로만 알고 계셨다.

스무 살 되던 해에 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구속되었고 부모님이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8개월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여전히 본드를 끊지 못하고 구속 수감되는 일을 되풀이 하는 사이에 어느새 이십대 중반에 이르러 있었다. 병무청에서 병역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구속된 처지에 있는지라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나이가 차면 괜찮아질 거라 믿고 계셨던 부모님은 내가 습벽을 버리지 못하자 언제부턴가 돈을 주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나는 집안 신발장에 있던 구두약, 그것도 다 없어지면 치약을 봉지에 짜 넣어 냄새 맡고 대리만족하는 중독자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걸 왜 나는 몰랐었는지….

그렇게 몽롱한 상태로 집을 나와 아버지의 아는 친구 분을 만나면 인사하면서 다가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거나,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니 차비 좀

달라고 해서 돈을 모아 본드를 사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이처럼 내가 본드 중독자로 전락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본드를 처음 시작하고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짧았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들을 썩은 과일처럼 취급받으며 중독자의 말로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고 어린 시절 꿈꾸었던 푸른 꿈들도 담 안에 갇혀 시들어 가고 있다.

마약에 대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듯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한때는 이런 나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어렵게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도 했지만 어느 순간 유혹이 마수를 뻗쳐오면 아무리 몸부림 치고 생각을 바꿔보려 해도 견디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오면 '이번 한번만 하고 말자' 며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내려 했다. 한번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전의 괴로웠던 모든 순간들이 즐거운 현실이 됐다. 가슴이 벅차고 염려하고 관심 가져 주었던 고마운 분들의 모습마저도 나를 어찌하지 못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본드를 구입하고 인적이 드문 근처의 산을 들어갔다. 그리곤….

시간이 흐르고 그 깊은 환각의 늪에서 깨어났을 때는 온통 지친 몸과 어디에서 찢어졌는지 모르는 옷, 그리고 팔과 얼굴에 난 작은 상처들, 그렇게 산속의 어둠 속에서 모두 잠든 밤을 혼자서 헤매고 다니게 된다.

한번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일단 시작하면 백번도 아쉬운 중독의 무서움.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이것에 나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중독자의 모습으로 살아 왔다. 부모님도 이젠 내가 교도소에 있는 것이 더 안심이 된다고 하실 만큼 애물단지가 되었다.

옷에 떨어져 굳어 있는 본드처럼 내 인생의 곳곳에 스며들어 슬픈 기억의 악취들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처럼 몹시 쓰리고 아프다.

몇 번이나 포기했다가 다시 펜을 잡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마 본드 중독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고 이 깊은 늪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단약의 의지를 새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많은 청소년들에게 본드 중독의 심각성을 바로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유혹을 물리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와 같은 전철을 밟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전히 완전한 회복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유를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 재소자의 처지인지라 이번 수기를 통해 희망적인 회복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글을 마치게 됨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한다.

다행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비참한 중독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회복되어 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약물 중독을 알고

—변 호 영

막상 이렇게 글을 쓰려 해도 할 말이 없다. 그저 과거에 대한 고통과 후회의 연속일 뿐 무엇 하나 똑바로 된 것 없는 그때의 모습, 그것은 바로 약물중독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때부터였다.

지난 10여년의 세월을 약물중독으로 고생을 했는지 아니면 반항을 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반항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처음으로 약물을 했던 것은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친구들을 통해서 였다. 약물을 시작한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학교나 사회에 문제가 잦았던 친구들이었고 이 친구들과의 만남이 곧 약물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된거 같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의 본드 흡입에 많은 거부감을 표시했다. 친구들의 본드 흡입을 못하게 했던 내가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나니 결국 나도 본드를 흡입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철물점을 찾아가 본드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군 입대 하기전 본드흡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그리고 군 제대 후 40여일 만에 다시 본드에 손을 대어 징역을 살게 되었다. 처음엔 정말 억울하기만 했다. 왜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많은 반문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 나는 쉽게 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처벌을 받으면서 그만 둘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행동이 따라주지 않았다.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약물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영문에 다시는 안 걸리면 되지 하면서 다시 약물을 사용했다.

눈이 풀리고, 몸은 쑤시고 아프고, 밥도 못 먹고, 일도 못하고, 모든 것이 불행의 골짜기로만 추락했다. 그리고 '또 구속이 되면 이젠 정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그것을 망각하고 또 시작하는 것이 약물이었다. 대부분의 문제는 한심하고, 무력한 자신이 싫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부수고 파괴하는 일임이 분명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을 수 없는 괴물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를 고민도 했다. 나 스스로 끊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병원치료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고 마지막이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기도 했다.

다섯 번째 징역을 살 때, 고민 끝에 치료감호소로 보내줄 것을 담당 판사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치료감호소에 가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또한 그곳 환자들과도 휩쓸리지도 않았고 직원들과도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오직 단약만이 내 삶의 목표였고 그것이 전부였다. 잡념이 생길 때면 책을 많이 보았다. 주로 읽던 책들이 인도 철학자들의 고행과 깨달음에 관련된 책이었고, 사상가들의 비평과 관련된 서적도 읽었다.

나는 조금씩 변화되었다. 이제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못한 점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곳 치료진들에게서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교도소와 다른 환경이었다.

모든 것을 잘했던 못했던 책임질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환경 속에서 단약은 시작되는 것이라 보여진다.

나는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그 동안에 내모습이 얼마나 나약했고 미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정말로 세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알게 된 이후로 나는 인간으로 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 자신을 일깨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은 될 수 없어도 나 자신을 돕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마저도 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삶이 이 땅에 존재함을 비로서 나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치료감호소를 퇴소하고 마약과 약물의 유혹을 견디기 시작했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극복되었고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타협도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꿈이 있다면 약물상담사가 되어 마약과 약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약물에 유혹되지 않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삶의 노력만이 단약을 위한 우리의 목표라 생각한다. 이제 마약은 끊는 것이 아니라 마약이 없는 환경으로의 전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단약', 그것으로 최초의 불행을 최고의 행복으로 이끄는 선각자가 될 것임을 나는 믿고 싶다.

Last life

—김 운 용

1986년 8월 15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처음 세상을 보게 되었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으며 춤에 소질이 많던 나는 댄스 대회에 참가해 우승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을 만큼 춤을 좋아하는 청소년이다.

하지만 잠시의 잘못으로 인해 재판을 받아 소년원학교에 오게 되었다. 이곳에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중 약물로 인해 오랜 시간 돌이킬 수 없는 방황의 시간을 가졌다.

내가 처음 약물이란 무서운 것을 접하게 된 동기는 이렇다. 같은 동네에 살던 나와 절친한 형이 한명 있었는데, 어느날 그 형이 집에 찾아와 혼자하면 재미가 없다고 나에게 본드를 함께 하자며 유혹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내 나이는 13살, 너무나도

어리고 어린 나이였다. 판단력이 부족했지만 나쁜 짓이라는 것은 알았기에 많은 갈등을 하고, 그 갈등 속에서 호기심이란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처음으로 약물이라는 무서운 것을 접하게 되었다.

13살이라는 나이에 본드라는 것을 알아버렸고, 처음엔 딱 한 번만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습관화 되어 처음 본드를 경험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본드를 흡입하며 환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면 할수록 흡입량의 정도는 조금씩 늘어갔고, 환각의 정도 또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곳까지 빠져버리게 되었다. 조금은 어지러운 기분, 게임처럼 미로 속을 헤매며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단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미묘한 기분들이 가슴속에 깃들며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본드가 일상화 되어버린 나는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게 되면서 그 정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가출을 선택하게 되어 살고 있던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게 되었다.

돈 한 푼 없이 갈 곳도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세상살이가 얼마나 무섭고, 험난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서울로 올라간 후 매일 밤 길거리를 배회하다 보니 몸은 지쳐갔고, 끼니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해 쓰러지기 일보직전의 녹초상태가 되어있었다. 견디다 못한 나는 최후의 선택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결국 절도로 인해 처음으로 파출소에 가게 되었고 가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의 이런 과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습관처럼 본드를 흡입하는 버릇이 생겨버렸다. 나는 그렇게 본드를 흡입하며 시간을 보냈고, 실생활보다는 환상 속에 빠져 사는 날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약물의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본드의 부작용으로 인해 어지러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이젠 본드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고, 부작용의 무서움을 알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드에 대한 집착과 흡입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나는 결국 15살 어린나이에 처음으로 유해화학이라는 죄명을 안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

유치장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며, 지난날을 되돌아보았고, 반성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면회 오신 부모님께서는 한마디 꾸지람도 하지 않으신 체 모진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 부모님의 서글픈 눈물을 본 나는 다짐했다. 다시는 본드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부모님 마음 또한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내 자신과 약속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유치장에 있는 시간동안 몇 번이고 되새기며 곱씹었다.

부모님이 이리저리 알아봐주신 덕에 훈방 조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한동안 내 인생에 본드는 없었다. 그 일이 있

고난 후 오로지 내가 배워온 춤에만 집중하며 춤 연습으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미 본드가 일상화 되어버린 나에게는 본드를 끊는다는 게 쉽지 만은 않았고, 그때부터 본드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역시 습관화 되어버린 본드는 마치 악마가 유혹 하듯 나를 유혹했고, 그때마다 인내심으로 참고 또 참으며 견뎌야만 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본드가 생각났고, 또 같이 본드를 흡입했던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정말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춤 연습에만 전념했다.

세월이 흘러 내나이는 18살이 되었고 누군가의 소개로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 춤을 직업삼아 열심히 연습하면서 하루하루를 재밌게 보냈다. 같은 댄스그룹 형들의 친구들을 소개받아 만나면서 모두들 착하고 나에게 친형처럼 잘해주어 마치 친형제처럼 지냈었다. 그러던 중 조그마한 공연을 하게 되었고, 첫 공연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 우뢰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속에서 공연을 마치고 흐뭇한 미소와 함께 잠깐의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데 처음 보는 형들 두 명이 다가와 뜬금없이 '러미라'를 팔아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러미라'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체 팔아주면 11만원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

팔아만 주면 거금이 생기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돈을 벌어서 같이 지내던 그룹 형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러미라'를 팔기 시작했고, '러미라'를 어느 양만큼 팔아줄 때마다 돈을 받아 용돈처럼 쓰고 다녔다. 돈 맛을 알아버린 나는 이젠 1~2만원 따윈 결코 큰돈이 되지 못했고, 결국 돈 욕심 때문에 '러미라' 판매가 나의 직업이 되어버렸다.

처음엔 팔기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게 무엇인지 먹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겨 '러미라'를 먹어 보았다. 호기심으로 먹어본 '러미라'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했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던 '러미라' 복용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 후 나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폐인의 모습으로 되어버렸다. 서울역에서 약을 팔았고, 판돈으로 나 또한 약을 복용하며 몸은 떨림으로 피폐해져 갔다. 그러다가 수전증까지 생기게 되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아주 큰 지장을 주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춤까지 포기한 체 약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친형제처럼 지내던 형 한명이 나의 '러미라' 복용 사실을 알고 찾아와 타이르기 시작했다.

"운용아 네가 약물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볼 이유가 없으니 나와 인연을 끊자.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친구, 부모님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꿈을 생각하고 너의 미래와 인생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옛날 너의 모습으로 돌아

와 주길 바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마치 여러 장의 사진처럼 나의 과거와 부모님, 친구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 어렸을 적 본드사건이 선명하게 스쳐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버릴 것만 같았다.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워졌고, 세상을 원망하며 나의 모든 잘못을 합리화 시키려 했지만, 그것도 잠시 진정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악착같은 의지력으로 약을 끊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약을 끊고 난 후 계속해서 춤을 배우며 보람과 기쁨을 느꼈고, 내 자신에게 만족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어 갔다.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켰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그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만약 부모님과 그 형이 없었더라면 난 아마 아직까지도 약에 미쳐 이 세상에 폐인으로 남았을 것이다. 본드와 약을 하면서 그 환각의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을 잃을 뻔했다. 물론 내가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 가슴깊이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내 인생에 이러한 굴곡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나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성숙하지 못하고, 어쩌면 아직까지 방황의 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 그리고 후회를 최대한 이용하라. 깊이 후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 나에게 실패가 없었더라면, 과거를 뉘우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몇 십억 인구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약에 도취되어 오직 약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고 싶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당신 주위에는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이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인생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

나 또한 누구 못지않게 험한 인생길을 걸어와 끊기 힘든 약을 끊은 후에는 자신감을 갖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이라고 못하라는 법은 세상에 없다. 자꾸만 약의 유혹에 빠져들고 쾌락에 젖어들었던 기억들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한다. 우정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는 참아내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만의 노력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또한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록 몸은 허약해졌지만 아주 조그마한 희망과 의지력으로 다시 시작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뜻 깊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란다.

약물은 잠깐의 쾌락일 뿐이다. 어린 나도 잠깐의 실수였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새 삶을 살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잘 살아갈 것이라 믿는다.

희망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뜻 깊고 보람된 삶을 사시길 바란다. 언젠간 인생에 해가 뜨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앞에 감히 장담할 수 있다.

노력하자. 무조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노력하자. 노력만이 여러분이 살아갈 길이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어린 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사람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갖자.

환각흡입물질(흡입제)

ㅇ 환각물질의 정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2조)

– "환각물질"이라 함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법 제43조 제1항)

– 환각물질에는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이 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이 들어있는 신나, 접착제 및 도료, 그리고 부탄가스.(동 시행령 제22조)

ㅇ 종류

– "환각물질"은 "환각 흡입물질" 혹은 "흡입제"라 불리며, 흡입할 때 정신을 바꾸는 화학적 향(fume)을 발산하는 제품을 이르는 말로 가정용, 산업용, 의료용 제품에서 종종 발견되며 휘발성 솔벤트, 에어로졸, 가스, 아질산염으로 구분.

– **휘발성 솔벤트** : 페인트 신나, 니스, 드라이 클리닝 용액, 가솔린, 접착제(본드 등), 교정액 등.

– **에어로졸** : 고압가스(추진제)와 솔벤트 함유한 스프레이로, 페인트 스프레이, 탈취제, 헤어스프레이 등

– **가스** : 가정용품이나 상업제품에서 사용되는 가스와 마취제. 의료용 마취제 가스에는 이서, 클로로포름, 할로세인, 아산화질소(웃음까스). 가스에는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 등.

– **아질산염** : 아질산 사이클로헥실, 아질산 이소아밀(아밀), 아질산 이소부틸(부틸) 등

○ 처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에 근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 또는 제공한 자

○ 사용 이유

– 활용 가능성 높고(합법적인 제품이나 흡입은 불법), 저렴함

– 효과가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검출하기 어려움

– 은닉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움

○ 효과

– 일반적인 효과

· 취해 뻗음 : 먼저 의식을 잃게 되는 것을 경쟁하는 경향

· 불타기 쉬움 : 불 등으로 폭발 위험

· 차가움 : 압축가스는 저온이므로 입, 코, 목, 허파의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음

· 사망 : 취해서 운전이나 기계를 작동하면 사망 위험. 심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수 있음

– 즉각적인 효과

· 환각, 지각 왜곡, 방향감각 상실, 현기증, 감정적 변덕, 인지 손상, 떨림, 조정력 상실, 구역질, 흥분상태, 불규칙한 심장박동, 고통에 둔감해짐

– 뇌, 순환기계와 호흡기계에 미치는 효과

· 중추신경계 기능 억제

· 해머와 기억 손상

· 불충분한 호흡 과정 ⇒ 흡입 산소의 양 부족 ⇒ 순환 산소의 량 감소

· 불규칙적인 심장의 리듬

· 심한 두통, 인지 능력 감소

– 장기 효과

· 뇌 손상 : 뇌세포(미엘린의 외피) 손상 등 ⇒ 기억력 감퇴 및 상실, 집중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판단능력 장애, 운동 조정력 장애, 어눌한 말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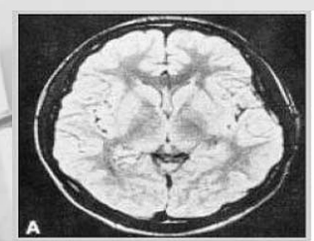
· 신장 기능 감소 : 신장질환의 원인

· 심장 근육 손상, 허파 기능 감소, 간의 조직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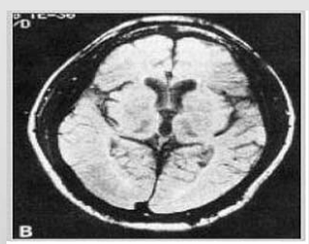
· 감각 능력 저하 : 시각 장애, 청각 상실

· 골수 장애 :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병 발생 등

〈 톨루엔에 의한 뇌의 손상〉



정상인의 뇌



사용자의 뇌

(자료 : 김대진 교수(부천성가병원) 제공)

2

유혹의 사슬

잊혀진 계절

-양근식

나는 2002년 10월, 히로뽕 투약 · 알선 · 소지 · 판매, 대마초 흡연 · 소지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받고 현재 OO교도소에서 재활교육을 통해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내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고자 한다.

16살 어린나이에 가출을 해서 여자를 알고 마약도 배웠다. 35년을 살면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학교 교육은 받아보질 못했고 마약에 빠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나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주었고 아직도 나 때문에 괴로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나에게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인 두 아들이 있다. 5년 전에 내가 구속되어있던 상황에서 아이들 엄마와 이혼을 하고, 그때부터 두 아들은 부모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집도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아버지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고 낙선을 하면서 가세는 기울었고, 어머니께서 생계를 꾸려 나가셨다. 아버지께서는 술을 가까이 하셨고 우리 형제들과는 대화도 없이 엄격하시기만 했다. 커가면서 나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쳤고 결국은 집을 나왔다. 집을 나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내가 자란 곳은 바닷가이고 관광지여서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았다. 어린 나에게 그곳은 호기심의 천국이었다.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도시는 매일 밤 나를 그곳으로 불러 음악을 듣고 춤을 추게 하였다.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술, 담배, 대마초 그리고 필로폰까지 하게 되었다.

돈이 필요하면 모르는 상대에게서 돈을 빼앗고 남의 물건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점점 방탕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어 갔다.

자주 다니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형을 알게 되었고 친하게 지냈다. 나이차이가 많았으나 외로운 나에게 친형처럼 잘 대해주는 그를 따랐고 많이 의지하게 되면서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의 이상한 행동과 집안 구석구석에서 피 묻은 주사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중에야 형이 필로폰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형에게는 가끔 찾아오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며칠씩 잠을 자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형은 매우 예민했고 성격도 난폭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다.

내가 처음 히로뽕을 배운 것도 그 형에게서였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웠다.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서로의 팔뚝에 주사를 놓아주었다. 너무나 좋은 경험이기에 좋아하는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다.

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가?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필로폰 의존자이다.

결국 형은 마약법위반으로 구속 되었고 필로폰을 구할 수 없게 된 나는 아는 루트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투약하게 되었는데 효과는 처음과는 달랐다. 약 기운이 떨어지는 시간도 짧아졌고 그럴 때마다 몸도 많이 아파왔다. 감기몸살을 심하게 앓는 사람처럼 고열로 정신을 잃는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투약하는 횟수와 양도 늘어났다.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돈을 구하기 위해 남에게 돈을 뺏고, 도둑질도 하며 부모님이 안 계시는 틈을 이용해 어머니의 패물도 들고 나오기

도 했다.

그러는 동안 친구와 함께 대마초 흡연으로 경찰에 잡혀갔었고 구치소까지 넘어갔지만 초범이고 나이가 어려서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부모님께서 많이 놀라하셨고, 특히 아버지께서는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 몹시 수치스러워 하셨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나는 잠시 집에 있었지만 학교는 퇴학을 당해 갈 수가 없었다. 집에서 놀면서 친구들과 다시 어울렸고 그때 아이들 엄마인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17살 동갑이었다. 나는 다시 집을 나왔고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매일 집에서 친구들과 약을 먹고 대마초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새벽에는 아는 선배가 장사하는 바닷가에서 일을 도와주며 용돈을 받았고, 그녀는 맥주를 파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약과 대마초, 필로폰을 구하는데 썼다. 친구들과 나는 점점 필로폰에 깊게 빠져들었다.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었다. 거짓말도 하고, 돈을 뺏고, 훔치고, 바닷가 노점상들 상대로 갈취도 하고….

그때 나는 필로폰을 계속해야만 했다. 필로폰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가 결국 나는 다시 18살 때 친구들과 함께 구속이 되었다.

구치소에서 반성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벌금형으로 풀려 나왔다. 주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마약전과자들이 하나 둘씩 많아져 갔다. 그 중 구치소에서 알게 된 선배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선배는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그 선배를 알고부터 더욱 필로폰 중독에 빠졌다. 하루라도 필로폰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 선배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야만 필로폰을 맞을 수가 있었다. 필로폰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 따랐고 돈도 쉽게 만들 수가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변해갔다. 3~4일씩 잠을 자지 않았다가 잠에 빠질 때는 2~3일씩 잠들기도 했다. 음식도 먹지 못했고 밝은 태양은 눈이 부셔 낮에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팔에는 주사바늘자국 때문에 항상 멍이 들어 있었다. 밤만 되면 앙상하게 뼈만 남은 도저히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상태로 거리를 헤매고 다니곤 했다.

아이들 엄마는 그런 나를 보고 울기도 많이 했고 가슴 아파했지만 나는 더욱 깊게 약물에 빠져들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약, 대마초, 필로폰뿐이었다. 어떤 때는 환청이 들렸고, 환시까지도 보였다. 상태는 점점 심해졌다.

집사람은 이런 나를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서 나는 난동을 부렸고 독방에 감금되었다.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고, '더웠다 추웠다' 를 반복했고, 입안

은 바짝바짝 타들어가 입술은 찢어지고, 몸에는 벌레들이 기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에 참을 수 없어 긁다보니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벽에다 머리를 박고 몸이 너무 아파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결국 나는 침대에 묶여 주사를 맞아야만 진정이 되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퇴원을 했지만, 곧 친구들을 만났고 마약을 조금씩 하다가 다시 구속되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하였다. 그날 아버지는 나를 심하게 야단을 치셨고 나는 반항을 하며 집을 다시 뛰쳐나와 버렸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찾겠다고 다니시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다. 뇌수술까지 받아야했고 수술을 받고도 사람을 알아보질 못했다. 내 나이 20살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 2차, 3차 수술이 거듭됐다.

다행히 의사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져 2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다. 나는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였다.

한동안은 삼촌이 계시는 페인트공장에서 일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 사람들과 잘 지내지를 못했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도 싸움을 자주했고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못했다. 다시 옛 친구들을 찾게되었고 마약에 빠져 버렸다.

22살에 처가 큰아들을 임신하였지만 나의 생활은 변화가 없었다. 매일 마약에 빠져 가족은 돌보지도 않은 채 약에 미쳐만 가고 있었다. 또 다시 구속이 되고 이제는 실형을 받았다. 그때 처음으로 크게 후회를 했고 아이엄마와 아들에게 너무도 죄스럽고 미안했다. 수감기간동안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 또 다짐했다.

출소하고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쉽지 않았다. 생활비도 필요했다. 더이상 마약을 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은 얼마가지 못해 허무하게 무너졌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고 서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필로폰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필로폰을 구해주면 돈도 만들 수가 있었다. 생활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며 지내다 두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아무 책임감이나 대책 없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나는 필로폰 알선으로 기소중지 되어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로 필로폰을 하며 여관을 전전했다. 내 자신이 너무 밉고 한심하여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나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자살했다는 소식까지 들었다.

필로폰을 하고 집에서 목을 매달았다는 것이다.

나 또한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다가 내 자신을 바꾸어보기 위해 배를 타보자는 결심을 했다. 150톤 정도의 고기잡이배를 탔다. 3개월 정도 많은 고생도 하고 이제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어 다시 돌아왔지만 생각과 현실은 많이 달랐다.

예전의 기소 중지 건으로 곧 구속이 되었고 실형을 살고 나왔다.

출소를 해도 도움을 받을 데도 없었다. 당장 생활비는 필요했지만 직장을 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나는, 결국 마약을 다시 찾게 되었고 결과는 너무도 뻔했다. 이번에는 마약판매로 구속이 되었고 아이들 엄마는 이런 나에게 지쳐 애들만 남겨둔 채 떠났다. 10대 때부터 10년을 넘게 나를 지켜주었던 아이들 엄마가 떠나버린 것이다.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내 자신을 돌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교도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괴성을 지르고 동료들과 싸움도 자주하고 직원들과도 마찰이 많았다. 징벌에 또 징벌…….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았다. 자주 흥분하고, 흥분하면 이성을 잃었다. 더 이상 여러 동료들과 생활이 되질 않아 독방에 수용되었고 청송2교도소에까지 가게 되어 순화교육도 받았다.

수년간 독방에서 지냈고 혼자서 가족들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나도 TV에 나오는 평범한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 큰애는 부모님이 잘 돌보아 주셨는지 공부를 썩 잘하고 생각도 어른스럽다고 한다. 그 아들이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다니는 친구들이 최고 부럽다고 한다.

부모님은 이제 칠순을 바라보고 계신다. 애들 엄마도 이혼은 했지만 가끔 애들을 돌보고 있다. 나에게 면회도 오곤 한다.

나의 인생 중에 너무 많은 시간이 마약으로 인해 망가져 버렸다. 두렵고 겁이 난다. 매번 반복되는 나의 모습, 마약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부모님과 어린 두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3년이란 시간 속에 2년 8개월을 살고 곧 사회복귀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니 자신이 없다. 기술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당장 나가면 부모님도 모셔야하고 생활비에 애들 교육비까지…….

'그냥 마약을 안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수없는 다짐과 각오 밖에는…….

출소 이후 연고지에 있는 동안 주위에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것이다. 그 유혹을 이겨야하며 당장 마약으로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다.

가족들의 시선도 두렵다. 분명한 것은 '마약은 절대, 절대로 안한다' 는 것이다. 남은 수용기간 이곳 OO교도소에서 재활교육을 열심히 받으며 여러 직원 분들과 강사님들의 도움을 빌어 나 자신을 찾고 내 가족을 위해 다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분명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고 앞으로 내 두 아들과 부모님과 함께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살아 갈 것이다. 아마도 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을 것이다.

내 나이 서른다섯 아직 늦지 않았다. 겸손하고 꾸준하게 나의 진정한 삶을 찾고 가꾸리라.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리라.

중독에서 단약 회복으로 가는 길섶에서

—박 우 혁

마약의 시작은 자신의 선택,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지지만, 마약중독에서 벗어나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혼자서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 본다. 누군가 곁에서 조력자로서 동지애를 발휘해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끝없이 돌봐주어도 재발, 실패할 확률이 높다.

나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천쉼터' 에 입소하여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재활의 의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약물 의존자이다.

이번 경험 수기는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값진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약물을 사용하고 약물을 끊을 수 없는 상황만을 약물중독이라 보지 않는다고 송천쉼터 교육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약물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42세 때까지 약물을 아무 거리낌, 죄책감 없이 시시때때 사용해온 나로서는 내가 약물중독이라는 걸 인정하기 까지 20여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약물은 나에게 너무 쉽게 다가왔고, 많은 느낌들을 주었다. 처음에는 기침약인 '러미라'를 과다복용 하여 환각증상을 느꼈고, 다음으로 '대마초' 그리고 '필로폰'. 그밖에 성분을 알지 못하면서도 약에 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접해 본 약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약을 해야하는 충분한 이유도 없이 호기심과 충동적으로 약을 접했다. 또래 간에 우월감과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과시에 찬 잘못된 호기에서 시작되어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현실도피, 세상의 어려움, 사랑의 실패 등 어떠한 문제이던지 약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이것처럼 쉽게 그 근심을 잊게 해주는 건 없었다.

지금에 와서야 얼마나 무모한 선택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들 뒤에는 항상 약물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으며 약물을 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약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당시에는 후회도 몰랐다. 약물을 사용하면서 약물의 피해자는 나 하나뿐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에 불법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때에도 억울해 하였으며 법 때문에 약물을 끊지 않겠다고 어리석은 다짐도 했었다.

약물이 주는 많은 것들 중에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 느낌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순간적인 초월하는 듯한 감정들이었다. 정신적인 평온을 약으로만 느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약물은 계속되었다. 내가 얻은 것들이 영원 할 수 없고 약물을 사용하였을 당시에만 느낀다는 것을 알아야 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서야 깨닫는 우매함을 그때는 몰랐다. 그야말로 환각에 불과한 것을….

그 우매함의 결과로 이제는 병든 몸과 무거운 짐들만이 남아있다. 가족을 돌보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 낙오된 나는 단약과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 반대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제 난 단약과 회복의 길섶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고 또 가고 싶어 한다. '단약'은 약을 중단한 상태를 말하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은 단약을 하고 나서부터의 감정들이다.

사회적으로 그 어떠한 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범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약을 선택했던 나약한 의지, 어리석음 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단약, 회복, 재활에 방법과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많은 의견과 조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정보와 자료에서 여러 기관, 병원 등에서 의존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움직임을 느낀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건 없을 것이다. '중독'에는 의존자들 제 각기의 고민들과 문제, 아픔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의존자인 나는 아직도 '이기심', '게으름', '합리화', '투사', '교만' 속에 있다. 그 위에 단약과 회복, 재활이라는 짐이 얹어져 있다. 힘이 부칠때 마다 나는 넘어지고 싶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

내가 경험한 것 중에 나를 단약의 길로 이끌게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외에 사회적인 낙오에 대한 두려움, 건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등.

하지만 나를 움직이는 단약의 의지는 내안에, 내가 느낀 '작은 자리' 에 있다. 마약은 모든 사람을 빠지게 할 요소가 분명히 있다. 특히 의지가 약하고, 무지하고, 질곡이 많고 아파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욱 강하게 파고든다. 강한 유혹과 쾌락, 안락함으로서 말이다.

여기서 작은 진리를 스스로에게 되새기면서 두서없는 글을 마치고자 한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장·단점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절대적인 좋음이란 없을 것이다. 약물을 사용하면서 느낀 순간의 쾌락이 끝나는 그 때부터, 내가 느낀 모든 것들은 허상이 되고 정확히 딱 그만큼의 고통, 좌절, 아픔, 슬픔, 불행이 우리에게로 온다. 서서히, 어김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

약물의 선택은 자신이 한다. 책임도 '자신 몫이다' 라는 이 간단하고 명확한 진리가 나를 단약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다. 의존자들은 여러 사람의 관심, 사랑, 도움이 필요하다. 정교하고 준비된 시스템, 교육, 환경, 공동체, 기관, 상담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의료인 등….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체험한 작은 진리의 하나는 "약물을 선택하는 그 순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이 정해 놓은 이 진리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다.

"선택은 당신이 하라."

나는 송천쉼터에서 1년 4개월 동안 입소생활을 하였다. 갈 곳이 없어 찾아온 이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단약, 회복, 재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모두 다 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가 왜 이 길에 있고 이 길을 가야하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인정할 때 진정한 '단약의 길섶에 들어선 것이다.' 치료공동체에서의 가장 큰 동기는 진정한 회복이란 가치관, 정체성의 변화에 있다. 나는 변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고 있다.

마약과 악연의 사슬

—박주현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흐느껴 울다 든 잠에서 화들짝 깨었다.

'누굴까?'

"엄마, 저예요. 막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컥하여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출 뒤 삼 년째 소식이 없어 애 태우고 기다리다 병을 얻기까지 어느 한 순간도 잊은 적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스물일곱 난 둘째 애였다.

'아이구 하느님 고맙습니다. 내 새끼, 살아 있었구나!'

2005년 7월인 지금 이 글을 쓰기 아홉 달 전의 어느 날이었다.

내 어머님은 용모도 고우신 데다 그 옛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시고 심성 또한 곱디고운 천사셨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백일 되던 때 두 살 된 오빠와 금실이 각별하던 아버님을 뒤로 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 힘들 땐 야속하다 원망도 했지만 나도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 가슴에 맺힌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산소를 찾아 손질을 해가며 비록 사진을 앞에 두고 영혼과의 대화이지만 '어머님 기쁘시게 열심히 살아갈게요' 라고 말씀드린다.

그 후 열 살 되던 해에 아버님마저 잃었는데, 아버지는 이북에서 월남하셨지만 박사학위 취득 하시고 용산 미8군에서 한인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자수성가하신 매우 다정다감한 분이셨다. 어머님이 남기신 필적과 소지품을 일일이 보이시며 어머님의 체취를 하나라도 느끼게 하셨다. 특히 어떤 상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자상히 챙기셨고 유독 내게는 각별한 사랑을 베푸셨다.

나는 지금껏 고초를 꽤 겪었음에도 정이 많고 작은 뭐라도 베풀기를 좋아하는데 이 성격의 근원이 아버님의 노력과 정성에서 비롯되어졌을 거라 믿는다. 늘 행복하고 든든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생생한 유년시절의 추억들이 자랑스럽고 그 누구보다도 내 부모님을 존경한다.

사람들은 조실부모했거나 중년이 되어 재산이 없으면 박복하다고 한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힘주고 살기에 아주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욱 복이 없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구실을 못하게 하는 마약이란 물건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만났을 때

라고 나는 단정하는데 다음의 내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973년 중학교 2학년 초. 생일이 늦어 만 12세였던 나에게 흉악한 검은 그림자가 솔개처럼 덮쳤고 이 사건은 곧 내 인생에 마약과의 악연, 바로 그 첫 번째 사슬이 되어 버렸다.

어느 늦은 오후 집 근처의 우태하 피부과 앞 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얘야, 서울역 가는 길 좀 알려줄래?"하며 어떤 아저씨가 다가왔다.

"그냥 이쪽으로 곧장 가시면 돼요." 했는데 다른 사람의 자가용을 타고 와서 전혀 모른다며 자꾸만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그때 그 길을 따라 나서지 않았으면….'

하긴 그 시절 넉넉한 인심에 천진한 아이라면 1㎞ 남짓 거리를 그토록 사정하는데 잠시 후에 있을 처참한 변을 모르니 어찌마다 했겠는가? 하지만 순수하기만 했던 그 발걸음이 중년 나이인 지금까지도 한 여성으로써 당당한 자신감을 잃게 할 만큼의 끔찍한 첫 경험을 갖게 하였다.

그는 당시 25세로 화신의 모 악단에서 베이스기타와 노래를 했고 마약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훗날 대중매체에 점점 더 자주 나오는 위치인 그를 볼 때면 잊어야 살 텐데 잊을 수 없게 되니 그 날 겪은 고통을 하는 수 없이 수천 수 만 번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싶다. 그는 오늘도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좋은 일도 한다는

뉴스도 듣게끔 하는 소위 인기인인 까닭이다. 마약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그 기막혔던 상황도 꽤 이해하고 있고 단지 너무도 어릴 때 직접적으로 해악을 준 마약만을 한껏 증오 할 뿐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76년 아버님 생전에 "외국유학하고 박사학위는 따야한다. 그 돈 다 벌어 놨다"는 말씀대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고 명문인 S여상에 입학했다. 사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재혼하시어 3년간이나마 행복을 갖게 하신 새 어머니가 계셨다. 맑고 투명한 여린 심성을 가지신 그 분은 갓 난 동생 남매와 닥치신 입장이 너무 힘드셨던 탓인지 이때부터 일체의 학비를 끊어버렸다.

학교는 야간으로 돌리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했다. 고달파도 꿈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두 번째 마약과의 악연에서 만 15세에 중독자가 되었고 1977년과 1979년생 두 딸을 낳으며 나는 미혼모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나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다. 마약 때문인지, 아니면 잦은 구타 탓인지 기억조차 부분적으로 흐릿한데다 이 대목까지 묘사하면 책 한권도 될 것 같아 대충의 경위만을 발생순으로 요약한다.

• 고등학교 1학기 중간 무렵 친척 친구인 ○씨가 막무가내로 "너 남자 경험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이제 시집 못가니 내 말 잘 들어"하며 자기 막내딸보다 어린 나를 대낮에 우리 집까지 와서 유린 한 일.

• 수면제를 학교에 가서 먹고 3일 만에 깨어나 어른들께 자살이유를 말했는데 친척과 ○씨와 새 어머니가 한자리에 모여 도리어 나를 야단치던 일.

• 새 어머니가 오빠와 나를 부르시기에 갔더니 어떤 30살의 아저씨(후에 애들 생부로 유부남)와 함께였는데 "주현이 학비를 대준다니 데려다 줘라"라고 했던 일.

아마 이때 오빠는 내가 병원에 업혀 갔을 때 집에 데려 가는 줄 알고 "집에 안가"를 되뇌였던 것 때문에 같은 청소년이라 집이 싫은 줄 알고 그 심부름을 했던 것 같다.

• 그 뒤 나는 무방비로 곧 마약중독에 빠졌고 만 3년 넘게 14곳이나 되는 외진 곳을 끌려 다니며 큰 딸을 낳고 작은 딸이 배에 만삭일 무렵 경찰이 와서 남편 아닌 남편을 잡아갔는데 몸에 좋다던 약초가 대마초란 마약임을 알고 경악했던 일.

한 가마니의 대마초를 재래식 변기에 쏟아 버린 것 때문엔 복역 후 출소한 애들 아버지에게 3세, 1세인 아기를 포함해 죽도록 맞고 기저귀 한 장 없이 맨 몸으로 도망치던 일.

• 대방동 아동 상담소에서 엄마도 미성년이니 셋의 장래를 위해 외국으로 입양 보내라는 선생님의 끈질긴 설득에도 결국 아이들을 고아원에 위탁으로 했고, 죽을 듯이 울며 달라붙던 사랑하던 아기들을 품에서 떼고 나도 바닥을 뒹굴며 몸부림치던 일.

• 이후 9년여의 시간. 어떠한 언어로도 이 시기의 고통을 표

현할 수 없다. 생살을 에어내는 듯한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마약의 금단현상과 싸우며 신경정신과에 입원했는데 중대 부속 병원의 OOO선생님의 권유에 자신감을 얻고 서울 '마리아 수녀회' 에 가서 예쁘게 키워진 십대의 두 딸이 이십대의 날 따라와 주던 일.

• 질곡의 이별 시간 동안 상처 입은 심신은 스스로를 가눌 것 같지 않았는데 돌덩이같이 응어리 진 두 아이들을 만난 것이 꿈만 같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험난한 세상에서 수녀님이 하신 것 보다 더 잘 키우려는 엄마로서 욕심을 냈고 그것이 그만 또 다른 상처를 애들에게 주고 말았다.

• 큰 딸은 포악했던 아빠 기억이 좀 있어서인지 그래도 날 이해하고 똑바로 나가 주었는데 작은 딸이 고2때부터 가출을 하더니 2002년엔 집에서 히로뽕이 내 눈에 띄어 경찰에 의논만 하려 한 것이 결국 나 때문에 작은딸을 전과자로 만든 일.

그 '악연의 사슬' 은 이렇게 질겼다. 집행유예에 이어 쪽지 한 장 없는 장기 가출. 그리고 이 글의 처음 시작에서처럼 2년 만에 그 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나는 천주교 신자이다. 뇌경색 증세로 지칠데로 지친 만 45세의 자신과 이젠 서른 살이 다 된 두 딸은 매 순간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고 살아간다. 결혼 한번 못해보고 "일찍도 까졌네"라고 놀림 받으면 "네~" 하며 웃고 넘기곤 집에 와 남 몰래 눈물짓는

얼룩 투성이 인생이다. 지금은 작은딸이 외국계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큰딸도 잘 살아주고 있으니 이제 나쁜 일들은 없던 듯이 다시는 떠올리지 않겠다.

내게 남아 있는 앞으로의 시간만을 생각 하련다. 어떤 일까지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하늘의 뜻이 마약퇴치운동을 시키시려 어린 소녀 때부터 연단하신 듯하다. 당산동 마약퇴치운동본부의 NA모임에 7개월째 매주 참석하고부터는 틈틈이 준비하던 고등학교과정 검정고시 공부의 목표를 한성대학교 국제마약학과로 세웠다. 또한 병나기 전의 직장인 시내버스 기사직으로 되돌아가 활기차게 근무도 하고 싶다.

내게도 행운은 있는데 고1때 담임선생님 내외분이 지금껏 챙겨주시고, 좋은 의사선생님도 만났다. 최근 구청에서 무료 지원하는 여성축구회에 들어가 평생 처음 운동도 하는데 4개월간 6kg의 체중감소와 더불어 엄청나게 건강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눈앞엔 실체도 없는 '마약의 사슬' 에 옥죄이는 듯한 금단 후유증인 우울증세로 가끔씩 깊은 나락 속으로 움츠러든다. 엄마를 미워한다면서도 제발 아프지 말고 즐겁게 사는 모습만 보여 달라는 장성한 딸들에게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나는 힘을 내어 운동장을 달린다. 축구공을 차올릴 때마다 날 괴롭히는 나쁜 느낌의 '사슬' 들은 함께 날려 버릴 테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본다.

"우리와 같은 마약가족을 편견의 시선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모두에게 있듯 언제고 누구에게도 마약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복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약을 끊고 곧게 살려고 힘쓸수록 다시 복 있는 사람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 같다.

끝맺음 말로는 "큰애야, 작은애야. 늙어도 나이 어린 이 엄마는 너희가 잘못되면 산목숨이 아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느님 저에게 언제나 새로운 영과 뜨거운 힘을 주소서……."

단약을 성취하는 그날을 위해

—홍혁진

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송천쉼터에 단약 성취를 위해 입소하여 하루하루를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약물에 의존 없는 새 인생을 준비하는 서른 살의 청년이다.

체계적인 단약을 시작한 초기 단계이기에 수기를 쓴다는 것이 민망한 점도 없지 않으나 청소년 시기부터 약물로 인한 실패와 좌절, 그 후 함께 찾아오는 고통과 역경, 그리고 현재의 소망을 품으며 살기까지 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아울러 나의 잘못과 비슷한 죄를 짓고 그에 대한 대가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나는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전교 2등을 하는 모범생이었다. 학급 반장을 도맡아 하면서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으며 학교생활 했다. 상급생으로 올라가면서 운동과 싸움에서도 다른 학우보다 뛰어나 같은 학년 중 최고의 주먹으로까지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부보다는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운동과 주먹질이 좋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는 친구들 대부분은 불우한 가정과 주위로부터 문제아로 취급받는 아이들이었다. 그 애들은 어려서부터 본드, 가스, 알약 등의 약물을 이미 중학생 이전부터 해오던 터였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 없이 약물의 유혹이 있었으나 뿌리치고 뿌리쳤건만 결국 친한 친구들의 계속된 유혹과 마음속에 꿈틀되는 호기심이 일맥상통되어 약물을 하게 되었다. 약물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현상을 수 없이 주어 그 달콤함에 빠져서 결국은 부모님과 주위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학업을 중단한 나는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친한 사람들 거의가 주먹세계에 활동을 하기에 주먹도 인정을 받고 주먹 쓰는 것도 밥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황당한 생각에 사로잡혀 주먹세계에 몸을 의탁했다. 그 후 나의 생활은 더 비참해져가는 늪에 빠지는 꼴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약물을 하던 친구들은 이제는 대마초 · 누바인 등에 손을 대었고 일하러 지방에 갔다 오면 엄청난 양의 대마를 가져오기도 했다. 나는 대마를 바탕으로 더욱 자극적이고 강하게 느끼려고 약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욕구에 찰 때까지 몸이 망가지도록 욕심을 부렸다.

차츰 성격은 거칠어지고 교만과 자만 특히 고집과 이기적인 생각이 강하여 주위 사람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게 됐고 그로 인하여 더욱 거칠어진 나는 증폭되는 폭력성에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 당시에 술은 매일 기본이고 약물도 수 없이 하고는 있었으나 조금도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폭력과 범죄 조직 등으로 몇 번 감옥을 갔다 오면서도 약물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계속하였다. 그 후 '남자는 의리' 라던 그 사람들의 이중성에 큰 상처를 받고 회의가 들기 시작하여 주먹 쪽에서 손발은 털었다.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위직종의 작은 봉급에도 만족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항상 먹던 술을 방심하여 양껏 먹고 즐겼더니 제 생활에 차지하는 의존이 점차 커지더니 술에서 다시금 약물에 손을 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약물로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였다.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분들의 부모님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고생은 다들 똑 같다. 그 전과가 약물 때문이라면 부모님께서는 더한 고통을 겪는 것도 아시리라 본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겪으시는 고통은 더욱 극심하다는 것도 공감하실 것이다. 내 부모님께서 겪으신 고통도 그랬다. 나는 이러한 현

실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도 컸다.

단약을 해야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치를 알면서도 그 한 가지 버릇을 끝내 버리지 못하여 반복하는 자신이 미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몇 번씩이나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이 글을 통해 그 순간들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약물로 인해 구속되고 철장 안에서 살아갈 의미를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감옥 안에서 있었다.

그 후 출소하여 대입 검정고시를 독학 공부하여 단 번에 합격하였고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의 추천으로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다니지 못하고 금전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고통 받던 나는 다시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고 술이 들어가더니 급기야는 끊은 줄 알았던 약물을 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신학생의 신분으로 감옥에 다시 들어갔다. 복역이 끝나고 출소 후, 다시금 신앙을 제 정비하고 너무도 불쌍하신 부모님을 생각하여 마음을 굳게 다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뜻밖에도 지방에 일하러간 친구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 친구와 관계가 깊어지고 서슴없어진 그 친구는 처음에는 대마를, 나중에는 마약을 권유하여 워낙 약물을 가리지 않기에 결국에는 손대서는 안 될 마약에까지 손을 대었다.

그러면서 쾌락과 욕구 충족이라는 마귀의 것을 받으니 그 대가로 물질적 · 육체적 · 정신적인 것들을 하나씩 뺏어가는 것이었다. 결국에 나는 삶을 자포자기하여 나만 아는 자가 되어 약물은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투입하였다. 그러면서 약물 값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 누구에게나 비겁하고 야비한 짓을 서슴없이 하였고 주위로부터 욕먹는 것은 다반사가 되어 이제는 어디 한곳 설자리 조차 없게 되었다.

그리고 약물은 물질과 육체의 부분을 다 갉아 먹고는 남아있던 정신까지 갉아먹기 시작하여 정신이상 행동을 자행하는 것이다. 그 중에는 모르는 타인의 변을 먹고 쓰레기를 뒤져서 음식물을 먹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약물을 사용한 후에 수 없이 하였다. 끝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철장안의 감금이라는 고통의 시련 뿐이었다.

그 안의 고통은 이제껏 지낸 감옥 생활을 합친 것보다 힘이 들었으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신앙의 믿음을 제 정비하여 사회 속에서 살아보고자 부딪쳤다. 그것도 잠시 다혈질의 거친 성격을 버리지 못하여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을 휘둘러 다시 철장에 갇혔고, 복역 후 다시 사회로 나오니 이제 찾아오는 것은 자기 비하와 소외감과 자괴감 밖에 없었다.

현실 세상 속에서 더욱더 뒤떨어져 있고, 퇴색해져 있는 내 모습에 신앙을 잃고 다시금 약물….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끝내는 다시 철장에 갇혀서 치료 감호소까지 가게 되었다. 감호소를

거쳐 올해 6월 만기 출소 하는 전과자 생활의 반복을 이어갔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안의 사랑을 이번 감옥 생활 중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된 불충한 행실의 표식인 전과는 늘어갔으나 믿음의 신앙은 예전과 다르게 더 두터워져 교도소를 나오게 되었다.

출소 후, 불쌍하신 부모님의 모습에서부터 여러 주위환경을 둘러보았다. 이번에는 신앙을 바탕으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직장을 가져 일을 했으며 교회에도 다니고 운동도 독서도 하는 등 하루의 주어진 시간을 조금의 틈도 없이 꽉 채워서 잠시의 여유도 허락지 않는 생활을 했으나 직장 생활과 주변인과의 관계에 꼭 따라오는 술의 유혹은 조금씩 내 의지를 갉아 먹기 시작했다.

오늘 한잔 마셨던 술이 하루, 이틀 가면서 양도 농도도 커졌고 지난날의 여흥까지 다시 깨어나 쾌락의 유흥 공간도 함께 어울려 서슴없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약물의 유혹이 몇 차례 제 마음을 휘어잡으려는 찰라 내게 천사의 손길이 왔습니다. 그 손길은 바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송천쉼터 운영팀장을 겸 하시는 임 상현 전도사님 이다.

서른이라는 나이를 먹는 동안, 십여 년을 약물 등의 전과로 고생만 안겨드린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에 일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선후공사를 하나님 안에서 설명해 주신 천사의 손길에 순종하기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 최초이자 가장 체계적인 약물 단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송천쉼터에 단약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며 같은 처지의 중독자 · 의존자들과 숙식과 교육을 함께하며 지내고 있다.

약물로 인한 후유증은 여러 가지이다. 그 어려움을 감당할 우리들의 마음에 차이가 있겠지만 단약을 하여 세상에서 웃으며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픈 소망은 모든 약물 의존자들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이다.

정상적인 사고의 사회인들로서는 이런 소망이 별 소망될게 없겠지만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십여 년에 걸친 약물 의존을 체계적인 단약 교육과 믿음의 신앙으로 성취하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곳 송천쉼터 안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단약의 필요성은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것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항상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날 더욱 다짐하게 한다.

"약물을 하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은 약물에 취해있었던 지난 십여 년 동안 겪은 역경과 고통을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은혜로우신 답이다.

이러한 도움과 은혜가 지금의 제게 단약 성취 목표를 더 확고하게 하고 있으며 이 말씀의 은혜가 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약물 중독 · 의존자들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순리라 여겨진다.

이젠 승리자가 되리

— 백 영 우

무엇이든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것 같다. 좋은 것에 중독이 되어도 '중독'이라는 말이 썩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마약이라는 것에 중독이 되었다면 그 얼마나 불행스런 일이겠는가!

호기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 나쁜 일에 호기심을 유발시키면 걷잡을 수 없는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나 역시도 처음에는 마약류를 호기심으로 시작하였다.

'한번 한다고 해서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시작했는데 가볍게만 치부했던 그 안일한 마음이 급기야는 습관이 되고 어쩌면 중독성으로 봐야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선 마약류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나태해져서 다른 건 전혀 못하게 된다. 오직 마약이라는 테두리 속에서만 안주하려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지만 그 또한 잠시의 깨달음에 불과할 뿐이다.

"끊어야겠다."는 간절한 생각은 누구나가 갖고 있지만 그게 과연 말과 생각처럼 쉬운 일일까 싶다. 내 경우로 봐선 그렇다.

나 또한 숱하게 마약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별짓을 다해봤다. 정신병원부터 치료감호소까지 내 스스로 자진해서 어떡하든 끊어버리고 싶어서 별짓을 다해봤지만 이미 마약에 흠뻑 취해 있는 중독 상태라 별 소용이 없었다.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마약류 사범들을 구속시켜 벌을 주고 있지만 역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하고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몇이나 마약을 끊겠는가. 사회와 격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국가에서 제발 알아주었으면 싶다.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범법자로 만들려고만 든다면 법이란 것이 과연 만인을 평등하게 해주는 장치인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삶을 무언의 협박과 강요로 살기를 포기하라 강요하는 것인지 의심해 볼일인 듯싶다. 아무리 긴 형량으로 벌을 준다 해도 그것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라 하면 한번쯤 다시 틀에 박힌 규정에 대해 제고하고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다.

하기야 국가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기위해 안간힘을 쓴 나와 그대들의 과오일 뿐이지…. 답답해서 힘없는 아우성을 잠시 질러보았다.

마약류에 의존하고 중독된 사람들에겐 특별한 약이 없다. 병이라면 병이겠지만 그 병에는 여느 병처럼 치료약이 없다. 또한 수술로써도 고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대로 저대로 마약에 취해서만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다."

이것도 병의 일종인데 왜 치료약이 없겠는가. 여기서 말하려는 치료약이란 투약하는 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의 약이다. 즉 의지의 약이란 말이다. 끊고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마약이라는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다.

한번 손대면 평생을 동반자처럼 함께 해야 하는 무서운 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고립되어 있다. 몇 해를 끊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단절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약의 강인한 생명력이다. 잠시 동안 마약을 끊고 어렵게 얻은 행복을 잃게 되었을 때 잠들어 있던 마약의 기억들이 되살아나 또다시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전보다 더한 폐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분명히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하려는 걸까. 그것은 나약한 의지와 삶에 대한 목적상실 또한 생각 없이 자행하고 있는 일의 말로를 알지 못하기에 그런 것 같다.

자포자기라 해야 하나.

될 대로 되라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 안에서만 머물려는 편협함 들이 모여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듯싶다.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마약에 의지하고 젖어 사는 사람들은 모른다.

잘못인줄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잘못을 범하고 사는 사람들.

때늦은 후회로써만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어둠 속으로 어둠 속으로 자진해서 계속 들어가려 고민하는 바보스런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만 무진 애를 쓰는 씁쓸한 사람들.

그 안에 내 자신도 속해있다.

난 반드시 끊고 싶다.

그대들도 기필코 끊고 싶은가.

그럼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길 간청한다.

우리들도 사람대접 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값비싼 수업료를 주고….

그렇다. 돈으로는 환산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계산을 치루고 터득한 해결책이니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우선 마약이라는 것을 끊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환상이라는 세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세계란 걸 스스로가 자각해야지만 마약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뼈를 깎는 고통과 힘겨움에 노력 없이는 헤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걸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의 나쁜 것을 얻기 위해서도 인생이라는 것을 대가로 치렀는데 하물며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끊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겠다는 단단하고 확고한 신념이 따라야 한다. 웃음이 눈물로 바뀌는 과정을 너무도 쉽게 거쳤던 우리들이다.

이젠 눈물을 웃음으로 다시 되 바꿔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단계인 것이다.

그 과정을 전자의 과정처럼 쉽게만 생각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 우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만 살아온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마음이 그 깨달음이 바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놓는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것이다. 꼭 그럴 것이다.

잃어버렸던 맑고 깨끗한 정신세계를 하나씩 되찾아 갈 때마다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이고 내가 지금 변화되는 것인가 혼란

스러울 것이다.

그런 혼란스러움이 생기더라도 절대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꼭 맞는 길을 잘 걷고 있는 자신을 독려해 주어라.

듬성듬성 뛰어올라 섰던 계단을 다시 내려서 처음부터 한 계단씩 뚜렷한 삶에 목적을 갖고서 오르는 과정의 시작일 뿐이니 낯설어 하지도 어색해 하지도 마라.

바른길이 낯설어도 걷기가 망설여지고 주저될지라도 우리가 바로 살고 싶다면 지금 잠시 낯설고 어색할 뿐인 그 생각을 무시해야한다. 처음이란 건 무엇이든지 망설임과 주저함과 설렘이 들기 마련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없는 마지막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의 끈도 꼭 잡고 놓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못 고칠 병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마음에 병 정신에 병 이 까짓것 못 고칠 이유가 없지 않겠는지요.

우리들은 몹쓸 병에 걸려서 긍정보다는 부정을 더 중요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런지요? 다시 한 번 조언 드리려 합니다.

마약이라는 늪에서 헤어 나오고 마약이라는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대마초

스웨덴 식물학자인 린네가 1753년 “식물의 종(Species Plantarum)에서 대마를 처음 분류하였다. 대마는 공중에서 수분(受粉)하는 키가 크고, 1년생의 암수딴그루(일부의 경우 암수동체도 있음)이다. 좋은 환경에서는 7미터 이상 크지만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도 자란다. 대마의 종에 대해서는 단일 종(린네의 분류) 또는 3종 등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칸나비스사티바엘의 종 아래에 변종으로 Cannabis indica, Cannabis ruderalis가 있다.

ㅇ 대마의 정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ㅇ 화학물질

– 대마초에는 46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고,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카나비놀, 카나비디올 등 161개의 카나비노이드가 있는데, 대마의 향정신성 효과의 대부분이 THC에 기인한다.

ㅇ 대마초 사용관련 처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제59조)

· 미성년자에게 수수 · 교부/ 대마 또는 껍질 흡연/ 섭취하게 한 자(제1항 제1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1조)

·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제1항제7호)

· 마 · 종자 껍질을 흡연 섭취/ 또는 이를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종자 및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 알선 한 자(제1항 제8호)

·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1/2까지 가중(제2항)

ㅇ 효과

– 기간

· 흡연 후 효과는 약 20분 후 최고조에 달하며 1~2시간 지속.

– (효과) 경험

· 대마를 오락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겪는 기본적인 효과는 쾌감(euphoria), 이완, 지각 변화. 효과는 사용량에 따라 다양하며 저 용량에서는 안녕(well-being)감, 감각(냄새, 입맛, 듣기) 기능 약간 고조, 생각과 표현에서의 미묘한 변화, 말이 많아짐, 낄낄 웃음, 음악 감상능력 증대, 식욕 증가 효과가 나타나며 고용량에서는 시각이 더욱 두드러지고 시간 감이 바뀌며 집중기간과 기억이 자주 영향을 받고 생각 과정과 정신적 인지가 크게 바뀜.

– 중간적인 효과

· 의식의 일반적인 변화, 식욕 증가, 느려짐(운전, 말하는 것), 피곤함, 핏발이 선 눈(무경험 사용자), 입이 마름, 기억 방해, 생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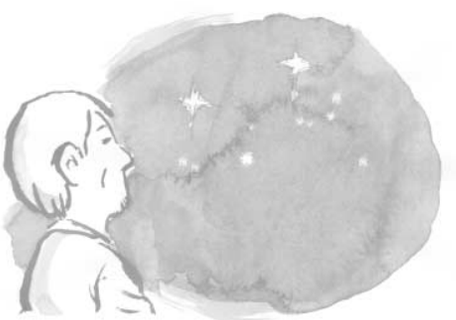
– 부정적인 효과

· 구역질, 기침, 천식, 상부 호흡기계 문제, 자주 사용 기간 및 영향을 받은 기간 동안 단기 기억 문제, 심장박동 증가, 초조, 긴장, 약한 정

도부터 심각한 정도의 근심걱정이 나타나고, 고용량이나 민감한 사용자에게서 공포적인 공격(panic attacks), 두통, 졸음, 혼란(confusion), 편집증과 걱정스런 생각이 더 빈번해지며, 대마초에 대한 심리적 의존, 일부 사용자에게서 매일 사용한 다음 "가벼운" 정도의 금단증상 발생. 이것은 사용 중단 후 1~6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걱정, 쾌감 결여증, 두통, 일반적인 불안(불편한 상태), 잠자기 어려움, 대마초를 사용하고 싶은 욕망 등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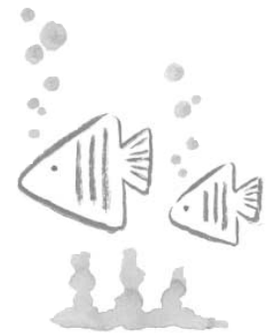
3

수렁에서도 희망을



마약은 나의 인생 모두를 빼앗아 갔다

－문상현



사람은 누구나 평범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남들보다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

나 역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엘리트 엔지니어라는 칭찬을 받으며 젊은 시절 의욕적인 직장생활을 하였다. 석유화학건설현장에서 수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플랜트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동안 성실하고 책임 있는 공사로 업계에서는 기술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소문과 함께 공사의 수주량은 회사 규모로는 처리해 나갈 수 없을 만큼 발전해 나갔다.

이 무렵 나는 십여 년간 사귀어 오던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이듬해 첫아들을 얻었다. 회사의 운영은 순조로웠고 가정에서의 행복 또한 최상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던 IMF의 여파는 나에게도 어김없이 닥쳐왔고 회사의 부도로 2년여의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출소 이후 재기를 위한 나의 노력은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아내에게는 허황된 꿈으로만 비춰져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나의 처지와 입장을 잘 알고 있던 친구는 나를 위로하겠다며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데려갔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재기의 의욕을 잃고 좌절하며 방황하던 나는 이곳에서 만난 여인의 위로에 마음을 빼앗기며 필로폰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다.

한순간 현실을 망각하고 잘못 판단한 자신을 후회하고 자학하면서도 타락과 향락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아내와 결별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고 필로폰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던 여자와 함께 2001년 5월 검찰에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석방된 이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던 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는 아픔과 함께 정신적 지주로 생각했던 형님마저 폐암으로 잃게 된다. 이혼이라는 동병상련의 시련과 아픔을 경험한 착한 여인과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나는 충북 단양에 귀농하여 1년이 넘도록 열심히 살고 있었다.

교도소에서의 인연으로 나를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중국에 함께 가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자는 제의에 새로운 삶을 강조하며 거절하였으나 이 사람과의 인연은 이때부터 악연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필로폰을 가져와서 소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수회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돌아간 이후 나는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으며 재혼한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나는 집을 나오게 된다. 이후 나는 필로폰을 밀수입 판매하는 이들 조직에 의하여 아내까지도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다. 이후 나는 7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아내는 자수를 권유한 나의 의중과는 다르게 기소중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팔순의 고령이신 아버님의 중풍을 수발하고 부양하다가 지난 2월 구속되어 3년의 징역형을 받고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다.

1년여의 수형 생활을 하면서 나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한순간의 잘못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택하게 되는 마약. 이를 접하는 순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당사자의 인생은 물론이며 가족모두의 상처이며 고통이 될 것이다고 확언하고자 한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악의 원흉인 마약의 근절과 예방을 위하여 용기 내어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망가진 나의 모습을 보이

는 것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의 계기가 되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함이며 마약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임을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나의 고백이 마약을 퇴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혼자가 아니야

－윤 호 섭

세월의 흐름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이다. 내 나이 어느덧 서른여덟, 불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년이 되었다.

옛 성현 공자께서 마흔 살인 불혹지년(不惑之年)에 이르러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반해 지금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 부끄러울 뿐 이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과 히로뽕을 배우고 난 뒤 엉망이 돼 버린 지금까지의 일들이 오버랩 되며 마치 한낮의 잠에 빠져 때론 달콤하기도 하고 때론 악몽 같던 꿈을 꾼 듯하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마에 맺히는 한 방울 땀에 보람을 느끼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살아가고 싶다.

처음 히로뽕을 접하게 된 것은 스물여덟 살 때 이다. 경기도 OO시 OO읍에서 술집 매니저 생활을 하고 있던 중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는데 바로 이 전화 한통이 내 인생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한 것이다.

몸서리 쳐지도록 무서운 백색공포로 말이다.

"호섭씨?"

"네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저 훈재라고 하는데 환규 형님 아시죠? 환규 형님 동생 됩니다. 형님께 호섭씨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다가 상의 할 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린 것 입니다."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서울에서 사채업을 하는 환규 형님 밑에서 일 할 때 얘기를 들어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네, 형님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아는 친구가 히로뽕을 살 사람이 없냐고 하며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기에 호섭씨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번호를 받아 적은 후 전화를 끊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몸담고 있던 업소의 사장인 동시에 친한 형이기도 한 완수 형에게 얘기를 하게 됐고 전후 사정얘기를 들은 형이 히로뽕을 구해서 아가씨들에게 주며 일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에 그럴 듯한 생각 같아서 히로뽕을 구입하게 됐다.

그런데 세상일이란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술집 아가씨들을 유혹 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던 히로뽕인데 히로뽕을 사온 뒤 호기심이 들었고 이에 투약을 한 끝에 내가 먼저 중독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애초에 의도했던 아가씨들에게는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온 몸을 휘감는 짜릿한 쾌감에 빠져 이때부터 현실의 생활들은 관심을 버린 채 하루하루 마약의 늪에 빠져 들었다. 약을 계속 구입해야 했기에 돈이 필요했고 수입이 별로 없던 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약을 구입하게 됐고 나날이 망가져만 갔다.

이 당시에는 가정도 직장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맹목적인 마약의 탐닉만이 있을 뿐 이었다. 급기야는 타고 다니는 차까지 팔기에 이르렀고 계속되는 투약으로 인해 몸에서도 이상 징후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 투약 당시에는 짜릿한 쾌감만 있을 뿐 부작용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분열을 일으켰고 망상에 빠져 현실과 환청, 환각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죄를 지면 언젠간 벌을 받는 법. 결국 히로뽕 투약 죄로 구속이 되었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의 구속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쁜 마음을 먹고 구입했던 히로뽕이 결국엔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온 것이다. 1996년 처음으로 히로뽕을 알게 된 후 지금까지 다섯 번의 구속으로 인해 8년이란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지금은 다섯 번째 구속이 되어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살고 있다. 호기심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 알았다면 결코 손대지 않았을 텐데 마약의 부작용 보다는 즐거움을 앞서 생각 했기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남긴 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항상 단약을 결심 하면서도 매번 다시 손을 대게 됐었는데 이번에 공주국립치료감호소에 가게 됐고 단약교육을 받으며 가족의 소중함과 내 인생의 소중함 등 너무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고 희망도 얻을 수 있었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사회였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마약중독자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와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나만 결심한다면 단약의 길이 그리 외롭고 힘들지 않으리란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처음 구속이 되었을 땐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말 그대로 생각 일 뿐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뭘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에 그냥 단순히 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시간이 흐르면 유혹을 참지 못해 손을 대게 되는 잘못을 되풀이하며 10년이란 세월을 보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물론 내 자신이 의지가 약해 단약을 하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혼자서 결심을 한다고 쉽게 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란 것이다. 본인의 노력과 함께 가족의 노력(사랑)도 필요하고 아울러 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단약을 하기가 훨씬 쉬우리라 생각 한다.

생각해 보라. 낯선 도시에 가서 길도 모르는 목적지를 혼자 찾아가는 사람하고 안내자가 있어 찾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단약을 결심하게 됐고 굳은 의지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려면 막연한 생각이 든다. 굳이 말을 하자면 우선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그 다음 내 자신을 돌아 봤으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

거의 모든 마약류 사용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막연히 혼자 생각하는 것 하고 누군가가 곁에서 생각을 일깨워 주며 끊임없이 동기 부여를 주는 것 하곤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국립부곡정신병원을 비롯한 지정치료기관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송천쉼터 같은 곳을 찾아가면 단약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길 안내를 해줄

뿐 결국 단약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밖에 없는 것이다.

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단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자신감에 차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혼자서 생각을 할 때는 이러했었는데 막상 출소를 해서는 결심이 무너졌던 적이 있기에 더 이상 교만함으로 혼자 자신만만해 하지 않는다.

자유가 구속당한 현재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부모님께 그리고 공주치료감호소에 계신 선생님들께 자주 편지를 드리며 그때마다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하며 경각심을 갖고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희망을 품고 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작은 것부터의 노력과 실천이 이어져서 결국엔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병은 감추지 말고 널리 알려라 했다. 마약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고 병인 것이다. 그렇기에 내 자신이 병자임을 인정하고 정신과 선생님들과 수시로 편지를 하며 단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좋아하는 연인사이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질 않나? 이렇듯이 항상 단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제 두 번 다시는 마약을 접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며 오늘 하루도 자성의 시간을 가져 본다.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 동안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십년의 세월을 허비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난 내 자신을 믿는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믿으며 국가와 사회를 믿는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약류사범들의 단속에 앞서 치료를 우선시 하고 치료에 앞서 마약중독의 무서움을 알리는 계몽을 우선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출소 후에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단약모임인 NA모임에 나가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고 나 또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 갈 계획이다. 혼자 고민하기 보단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유혹에 약해지려 할 때 마다 격려도 받고 격려를 해 주기도 하며 더불어 노력하는 곳이 바로 NA, 즉 자조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 사실 마약류사범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른다.

그렇기에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마약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싶다.

내가 그 손을 잡고 빠져 나왔듯이….

아름다운 화단

－유 목 인

"아름다운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화단을 이루듯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요."

1982년 4월 15일 아내가 나에게 한 말이었다.

그로부터 20년 후. 2005년 4월 15일 새벽의 안개를 뚫고 인천공항으로 달리는 차 속에서 군에 가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는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기념을 축하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명문대학 기계공학과 2학년을 휴학하고 현재 군 복무중인 아들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데 참 뜻밖의 인사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인천국제공항 미팅 포인트!

여행회사에서 여행일정표, 비행기티켓, 보딩패스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 포장된 박스를 선물 받고 우리 부부는 8박 9일의 동남아여행, 결혼24주년 기념여행을 떠났다.

같이 잠을 잔 날을 기억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많았던 지난 세월, 나쁜 기억 모두 버리고 신혼여행 같은 기분으로 두 손을 꼬옥 잡고 홍콩의 관광지, 야경, 점보식당, 요트도 타고 싱가포르의 새들의 공원, 분수 쇼 등 깨끗한 거리를 활보했다. 말레이시아의 고무나무 농장과 민속촌, 회교사원 등 이국적 분위기에 심취되어 사진 찍었고 기념품을 사며 일생에 남을 많은 추억을 쌓았다. 마지막 여행지 태국에 도착하여 방콕의 왕실, 에메랄드 사원, 알카자 쇼, 코끼리투어, 송바이 축제를 모두 보고 3시간의 버스를 타고 파타야로 옮겼다.

해안휴양도시 파타야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페러그라이딩을 하는 시간. 우리부부는 온몸에 안전벨트를 하고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보터보트가 끌고 가는 힘에 의해 하늘로 치솟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하늘. 바다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에메랄드빛의 투명한 바다. 창공에 떠있는 황홀함에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이때 아내가 하늘의 허공에다 큰 함성으로 “목인아! 이젠 두 번 다시 마약 하지 마라.”하고 팔을 벌린 채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듯 기도하듯 소리를 질렀다. 갑작스런 아내의 행동에 놀란 나는 나도 모르게 “희야! 알았어. 이젠 절대 안한다.” 이렇게 화답하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억지로 참고 착륙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태평양의 밤바다를 내다보며 페러그라이딩에서의 아내의 절규를 생각하고 난생처음 축복받은 참회를 하게 된다. 이국 멀리 결혼기념여행까지 와서 하늘에 기도하듯 절규하는 아내의 마약하지 말라는 절규에는 이러한 지난 사연들이 있었다.

– 악마와의 만남 –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다녀온 후 79년도에 한국굴지의 유명브랜드 패션회사 디자인 상품기획실에 입사하여 기획 상품 인지조사 및 패션쇼 주관 업무를 하게 됐다. 이때 각 방송국, 연예오락 PD, 연예인, 음악뮤지션, 모델, 공연기획자들과 유대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1982년 4월 15일 국가공무원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1983년에 큰아들을 낳고 1985년에는 둘째아들을 얻었다.

동부이촌동의 상류사회집단속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1985년 12월 서울 한남동 하이야트 호텔 리젠시 볼룸에서 패션쇼 기획을 맡아 가설무대장치를 밤새 작업 하던 중 음악을 담당한 선배로부터 피곤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권고에 따라 호텔 화장실에서 마약주사를 맞았다.

한국음악계의 인지도가 높은 존경하는 선배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나를 허락한 것이 악마와의 첫 대면이다. 뒷머리가 하늘을

치솟는 듯한 느낌과 정신이 맑아지는 듯하여 마약이라는 경계의식이 없어 소개해준 그 선배를 고맙게 생각했다. 마약은 구할 때도 없었지만 그 선배님이 몇 달에 한번씩 주어 그리 집착하지 않았다.

1986년 아시아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던 해 선배를 비롯한 유명연예인과 함께 투약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되었다. 난생처음 법적 처벌을 마약으로 받았고 40여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구치소에서 사귄 사람들을 통해 마약을 구하고 불과 3개월도 안되어서 동대구 관광호텔에서 마약을 구하려다 체포되어 20개월을 집행유예까지 복역했다.

이로 인해 모든 명예는 다 사라지고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 아내는 명문여고 출신의 수재이고 일찍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재원이다. 나를 사랑하고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었다. 장손의 며느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다 이끌어온 정직한 사람이다.

이에 반해 나는 폭군처럼 행사했다. 어떠한 충고도 의식하지 않고 오만불손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이때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막무가내로 마약을 찾게 되었고 교도소에서 사귄 사람들과 어울리다 전주에서 또 구속되게 된다. 이때도 아내는 용서했다.

1년의 형을 복역하는 사이 막내아들 영규가 후천성 심장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지 6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났다. 나를 꼭 빼닮은 아이, 통증이 올 때면 아빠 찾아오라고 떼를 쓰며 울었고 엄마보고 '아빠하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 는 말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내는 이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출소 후 아내의 건강악화 그리고 침체된 가정을 재건하기위해 나는 10년 동안 마약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부동산 회사도 갖고 아파트 건설시행회사도 하게 됐다. 어쩌다 TV에서 마약에 대한 것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고 우리가정에서는 마약은 말도 꺼내지 않았다. 영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나는 돈 버는 취미로 살았다.

그러나 2000년 추석 때부터 내 속에 숨어있던 마약의 용수철이 뛰어나온다. 방심한 결과였다. 그동안은 죽은 자식과 아들의 장래, 아내의 고생이 내 마음속의 마약의 용수철을 누르고 있었는데 10년이란 세월에 그만 방심한 결과이다.

많은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2년의 형을 언도받고 2003년 1월 1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 할 때까지 아내는 한번도 면회나 편지도 없었다. 큰아이는 어느 대학을 지원했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 잡채와 눈물 –

2003년 1월 1일 부산교도소를 출소할 때 굳게 다짐을 하고

막내 동생이 마중을 나와서야 아내는 순대국 장사를 하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 공과대학에 입시원서를 내고 합격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내가 없어도 각자 자기역할을 다해준 가족이었다. 새벽에 도착한 나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내가 차려 놓은 식탁에서 잡채를 발견하곤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잡채이다. 아내의 젖은 눈에서 '정말 이번엔 정신을 차렸나?' 하는 기대를 볼 수 있었고 자식은 기대 반 의구심 반으로 나를 대했다. 아내와의 약속은 이젠 순대국 장사를 같이 하면서 자식 뒷바라지나 하자는 약속이었다.

드디어 아들은 서울대학에 입학하였고 동네에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그 소문으로 순대국 장사도 더욱더 잘되었다.

아들 입학식 날! 온 천하를 얻은 느낌으로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고 우리가족은 울고 웃으며 파이팅을 외쳤고 2004년 새해맞이를 낙산사로 아내와 함께 갔을 때 아내와 기도한 제목은 아들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때도 나에게 마약에 대한 불안은 하나도 없었다. 순대국 장사는 문전성시를 이루며 장사는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되었고 아들은 명문대학에서 동아리회장 그리고 벤처기업모의창단대회에서 최고의 CEO상까지 받는 영광도 누렸다. 아침새벽장사는 내가, 저녁마감도 내가 하며 24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며 사람 사는 재미를 찜질방에서 노래방 그리고 외식 등으로 느꼈다.

아내는 승용차도 새로 바꾸어 주고 노는 날이면 이곳저곳 많은 여행도 함께 했다. 행복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수시로 아내는 잡채를 맛있게 많이 해주었다.

– 아악 비명소리 –

2005년도에는 아들이 군대에 갔다. 우리 부부의 계획은 아들이 군에 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아이 유학비를 저축하는 것이다. 아들의 군 입대 영장은 2월 1일 춘천 제OOO보충대로 입대하라고 날라 왔다.

1월 중순! 나 모르는 전화번호가 새벽에 부재중으로 찍혀있다. 가게에 출근해서 전화를 해보니 이천의 모 공중전화이다. 이어 아침 8시경 전화가 왔다. 참 반가운 목소리다. 성동구치소 같은 방에서 있던 김 모씨였다. 3개월을 한 방에서 지냈다. 육체미 보디빌더였고 친구의 꾐에 빠져 마약을 하게 되었다고 많은 반성을 하는 인상 좋은 사람이다. 매너가 좋고 가정도 의사, 박사의 형제들로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다.

아내와 아침교대를 하고 약속장소로 나갔다. 얼굴을 보자마자 차 속에서 마약을 꺼낸다. 마약을 보자마자 가슴이 뛴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5년 만에 또 주사를 맞았다. 맨 처음 아무런 조건 없이 준 줄 알았지만 내가 덫에 걸렸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돈을 요구한다. 밤11시에 일백오십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불과 5분 사이에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모든 행복이 깨지는 비명소리가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 약 기운에 휩쓸려 1달 동안 이 친구들과 지내면서 많은 돈을 썼다.

마약을 하면 잠을 못 잔다. 감정이 들쑥날쑥하여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성적인 상상이나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변태적인 생각과, 방황을 많이 하게 된다. 처벌과 아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두려워 호텔에서 두문불출 하고 일가친척과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여 명품쇼핑중독자처럼 마구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공포와 두려움을 잊기 위해 또다시 투약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약을 구하기 힘든 관계로 약을 파는 사람에게 최상의 예우를 해주고 늘 가까이 있게 하여 구입을 자유롭게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이에 대한 괴로움이 우울증으로 변하여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이번에 아내 모르게 집에 거짓말을 하면서 속였다.

밤낮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 돈을 요구하거나, 마약을 팔아달라고, 소개나 알선을 해달라는 공포분위기 조성에도 나는 다시한번 단절을 계획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3월 14일 구의동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의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사고를 내게 되었다. 아내가 순대국 장사를 하면서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민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몇 천만 원이 날아갔다. 정말 양심상 견딜 수 없어 나는 난생

처음 아내에게 처음으로 마약투약사실을 고백했다.

– 고 백 –

지금까지 아내는 내가 검거가 된 후에야 마약투약사실을 알았다. 더 이상 아내를 속일 수 없었다. 차라리 아내의 심판을 받고 싶었고 힘들게 쌓아온 행복이 깨어지는 아픔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집에서 아내에게 1달 전의 나의 행동을 상세하게 고백했다. 아내는 두려움에 질린 공포의 얼굴, 창백한 얼굴.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며 그렇게 못 끊겠냐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나는 쓰러지는 고목처럼 아내의 작은 가슴에 기대어 엉엉 울었다. 나이가 50이 넘은 우리부부는 어린애처럼 마냥 울었다. 아내가 나의 등을 두드려 주며, 여보!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고백을 하는걸 보면 당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나를 위로한다.

자연암 주지스님으로부터 부적과 처방에 덧붙여 더 이상 관제수가 없다고 하며 “당신은 정말로 더 이상 마약은 하지 않을 거라”는 스님의 예언까지 들려준다. 약물해독작용에 좋다는 목초액과 보약 그리고 보이차 등으로 나의 건강관리를 해주었고 마약을 전해준 사람과의 연락을 두절시키기 위해 전화번호도 바꿨다. 그리고 자수기간에 자수를 할까? 아니면 밀고를 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서 평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 동남아여행을 예약하고 우리는 모든 걸 용서하며 잘 다녀왔다. 5월 22일 아버님 제삿날! 나와 아내가 아침을 먹고 배추를 다듬고 있을 때 건장한 남자 2명이 김아무개씨 아시죠?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 진다.

'아들이 내일이면 첫 100일 휴가를 나오는데. 순대국집 장사는 어떻게 해. 차라리 투약을 한 적이 오래되었는데 부인을 할까?'

순간적으로 아내를 쳐다보니 "어떻게 해. 어머, 어떻게 해." 하면서 발을 구른다. 수사관과 빨리 집을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향했고 나는 석달 전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 페러그라이딩 약속 –

이 수기를 쓰면서 장난 같은 기분으로 마약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후회를 한 적은 없었다. 마약은 절대로 용서가 없고, 기쁨과 고통 모두를 뒤범벅 시켜 주변에 사람을 머물게 하지 않는다. 마약은 거래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래를 하는 순간의 지각을 멈추게 하는 무서운 약이다.

20년 동안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화산처럼 나는 마약으로 인해 4차례의 처벌과 자식의 죽음, 장인의 별세, 엄청난 재산의 탕진을 겪으면서도 못 느꼈던 것을 20년이 되어서야 아내의 용서로 인해 비로소 내 몸속 깊이 박혀있던 마약의 뿌리를 캐낼 수 있었다. 이번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이고 이국 멀리 태국의 파타야 산호섬 앞바다 상공의 페러그라이딩에서의 약속으로 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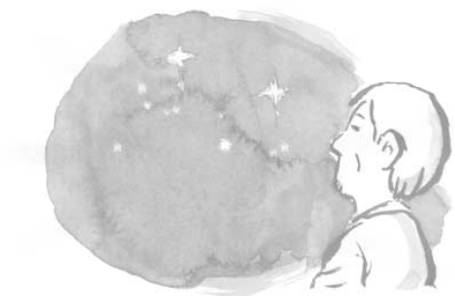
아내와 내가 꾸민 화단에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찰 것이며 아내와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끝으로 수기를 마친다.

"사랑한다. 너의 뼈 속까지…."

수렁 속에 희망을

– 정 영 석



푸른 솔이 처처(處處)에 둘러싸여 있어 청송이라 불리는 이곳, 회색 담장이 울타리처럼 높게 처져있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맑고 꾸밈이 없는 높은 하늘을 올려다 본다.

지금은 가슴에 따스한 기운을 느끼며 개화하는 여린 꽃봉오리처럼 또다른 내일을 꿈꾸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불과 십 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굳은 신뢰를 보내주던 그들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 초석들의 밑둥을 썩게 하고 세상의 순리와 이치를 역행하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던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냈으니 티없이 푸르게 펼쳐있는 저 하늘이 지금도 내 얼굴을 부끄럽게 만

드는 것 같다.

마약.

그 어떤 이유에서건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다는 죄를 하늘의 뜻을 헤아려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넘기고서 범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변명을 어떻게 쏟아낼 수 있겠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한번 빠져들면 죽음과도 같은 인내력과 의지력이 없인 헤어나기 힘들다는 그 암흑의 수렁 속을, 지금 이 시간도 그 연로하신 몸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어머님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먼 훗날을 내다보며 걷고 있는 자식의 앞날과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내 자신을 위하여 이젠 이빨을 깨물고서라도 헤어 나오고 싶다.

육이오 전쟁이 끝나고 곳곳에서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그 후유증이 까맣게 나타나고 있을 때 서울에서 네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친지와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소년시절과 청년기에 최고학부를 다니며 아무런 탈 없이 무난히 보냈다.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을 내 할일을 착실히 해나갔다. 무엇보다 친구들과 어깨를 견주어 보다 월등히 일어서기를 욕심부렸던 나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싶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조금 멀리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걸림도 없었다. 큰 어려움 없이 성공으로 이어졌던 오만함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친지가 권하는 마약을 받아들였다. 어떤 것에도 지지 않으려 했던 그 나쁜 근성이 지금의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향락을 꿈꾸며 즐기고, 자신과 가정의 건강이 피폐해져 있을 때에는 후회도 이미 늦어버렸다.

1995년, 탄탄대로를 달리는 회사를 경영하던 때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여파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더 큰 절망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절망 속에서 헤어나 2001년 사우나를 경영하며 재기의 몸부림을 치던 중 나의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2003년 6월, 또다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게 되었다. 당연한 죄에 대한 대가였다. 10개월 동안 자신을 다지고 또 다졌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가족들을 향한 사랑,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던 그 큰 웅지, 모든 것을 파탄으로 몰고 가 탕자가 되어버린 내 자신은 다시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졌다.

2004년부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실시하는 교육과 심포지엄 등에 열심히 참석하며 단약자들을 위한 한국NA모임을 창립하고 그 일원으로 작지만 소임을 맡으며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또다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며 암흑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고 지금 이렇게 높은 울타리가 처진 곳에서 처절하게 통곡하고 있다.

"이겨내지 못할 고통은 주시지 않으신다 했는데 제 자신의 인내력이 저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신의를 저버릴 만큼 나약한 것이란 말인가?"

흉각을 들추어 염통을 쥐어짜는 듯한 아픔으로 묻고 또 묻고는 하였다. 나약한 내 자신의 가슴을 치고 원망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적시며 보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씩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다.

긴 세월을 오로지 기도 속에서 보내신 어머니의 그 간절함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배어 있음을 말이다.

이 나라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아갈 하나 뿐인 아들이 겪어야 했던 그 동안의 가슴앓이가 고스란히 이 못난 사람에게 전이되고,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애꿎음 한번 없이 묵묵히 인내하며 바라보기만 했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이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나는 2000여년 전 갈릴리 교인들의 무분별한 신앙을 향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二信得意)"의 교리를 설파했던 감옥 속의 사도 바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안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 길만이 자식을 바라보는 연로하신 어머님께 드리는 유일한 희망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는 내 사랑과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늘 깨어 있겠다.

살만할 가치가 있는 세상 그리고 다시 일어서며

-김 용 순

참으로 푸르른 하늘이다. 눈이 부시도록….

온 실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대로 그 짙은 녹음을 뽐내는 요즘.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아름다움을 여유 있게 느낄 수 있다.

얼마만인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 만큼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며, 시달리며, 여유 없이 살아온 나.

글쓰기에 앞서 먼저 지금의 나를 이렇게 변화 시켜주신 하나님과 늘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는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의 이재규 실장과 조헌수 전도사께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

낀다.

돌아보기도, 떠올리기도 싫은 나의 어두운 과거, 그러나 그 누구라도 다시는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마약의 늪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과거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근검, 성실을 신조로 삼으시며 건축업을 하셨던 아버지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어머니, 공부 잘하고 유순한 누나, 이런 중산층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활달했던 성격이라 이것저것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쳤다. 보수적이고 엄하신 아버지였던 터라 그럴 때마다 매질도 당하고 꾸중도 많이 들었다. 당시 막 사춘기에 접어들던 중학생인 나는 그때마다 순화되고 훈육되기보다는 반항심과 반발심이 더 했던 것 같았다. 학교 다닐 때부터 싸움도 잘 했고 불량스럽게 놀기도 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학교 성적은 반에서 10등 밖으로 밀려나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친구가 좋았고 그들과 어울려 노는 게 좋았다. 남들보다 일찍 담배와 술을 배웠고 여자와 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렇게 서서히 타락해 가던 나. 17세 때부터 나의 배짱과 싸움실력을 눈여겨보던 선배들에 의해 대구 '동성로파' 라는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다.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 아닌 정말로 죽어야 하는 엄한 체계 속에서 온갖 험한 일을 행했고 겪었다. 그러던 중 19살 되던 해에 친구와 선배와 함께 조직간 싸움을 하는 와중에 상대 조직의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직접적인 사인이 내가 가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범으로 엮여 조직범죄단체처벌법에 의해 5년이라는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땐 조직의 일로 징역을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또 무슨 훈장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니 자연 반성이나 갱신의 마음이 들리는 만무했을 것이다.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와중에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다. 자유가 구속된 몸이었던지라 나가서 장례도 치룰 수 없었고 집안의 장남인 내가 없으니 누나가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보니 그때 그 암세포와 싸우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

핏줄인 아들이 저기 먼 곳에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한이 맺혀 돌아가셨을까.

생각하니 나 자신이 참으로 못났고 눈물이 흐른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면회를 오셨는데 항암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모자를 쓰시고 오셔서는 "용순아! 아버지 어쩌면 너 나오는 것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엄마 잘 모시고 누나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네가 아버지 몫까지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며 실질적인 마지막 유언까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난 아버지의 그 마지막 부탁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청소년기를 어두운 곳에서 보내고 1997년 24살의 나이에 다시 사회로 나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헛된 영웅심이 자존해 있었는지 또 다시 조직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땐 조금만 불법적으로 움직이면 큰돈을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의리 아닌 의리가 있는 건달이라는 직업이 좋았다. 그렇게 명분을 찾고 건달에 대한 주관이 뚜렷했던 나 역시 마약이라는 것을 경멸했고 마약하는 선배나 주변의 사람을 싫어했다. 그러던 내가 마약을 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1998년 3월경에 평소 그리 가깝지 않은 친구를 채무 문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갚아줄 돈이 현재 없으니 대신 이거라도 갖고 가라, 팔면 아마 빌린돈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거다" 라며 건네준 것이 바로 필로폰이었다.

그렇게도 마약을 경멸하던 내가 그때는 이상하리만큼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았고(아마도 내 돈 대신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중엔 호기심에 스스로 투약까지 해보게 되었다. 몸이 격렬한 쾌감으로 젖어드는 걸 느끼며 나는 서서히 그 깊은 수렁으로 한발을 내딛고 있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의지로 마약을 끊을 수 있으리라고 가볍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어느새 중독이 되어버린 나는 끊을 수가 없었다. 필로폰을 맞지 않으면 아팠고 필로폰을 하고 나서 섹스를 경험한 그 쾌감에 도저히 약을 하지 않고는 성 관계조차도 흥미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나는 마약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처음 마약을 접하고 4개월이 지났을 때 나에게 마약을 가르쳐준 그 친구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이전의 폭력사건과 겹쳐 또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 마약으로 복역을 할 때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며 나를 밀고한 그 친구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었다.

그렇게 첫 마약으로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왔지만 단약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다. 이것은 무조건 조심하고 잘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곧 다시 예전과 같이 조직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보니 자연히 마약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을 수가 없었다.

늘 밤에만 생활하게 되고 주변에 온통 건달, 노름꾼, 마약하는 사람들 등 사회의 어두운 곳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예전의 마약하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마약만 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번 이 필로폰으로 처벌을 받고나니 이 필로폰을 하고나서는 꼭 피해망상에 시달리곤 했다.

"또 검거되면 어쩌나?"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늘 피해의식과 불안, 의심 이러한 것들로 인해 정말 괴로우면서도 오히려 이런 괴로움을 또 약으로 잊으려고 더욱 자주

주사기를 팔에 갖다 대곤 하였다.

2000년 11월에 또 다시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다른 공무집행방해사건과 같이 처벌 받게 되어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때는 정말로 마약을 한 것이 후회되었다. 나이 27살에 또 다시 3년이라는 길고도 긴 시간을 보내며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어떤 때는 어차피 포기한 인생인데 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싸우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해로 내 몸을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이 미웠고 싫었다.

그렇게 3년의 형기를 마치고 2004년 5월 29일 새벽, 비를 맞으며 안양교도소 정문을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예전의 선배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한 선배가 "그동안 수고 했는데 회포 좀 풀어야지? 자 한 잔 해라"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나오기 전에 다시는 필로폰을 하지 않으리라고 각오하고 나왔던 터라 처음엔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필로폰의 느낌을 안 내 몸뚱이가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오고 배가 아프고, 손이 떨리면서….

결국 두 번째의 유혹에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징역을 3년이나 살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필로폰을 했던 나. 나 자신도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남들이 보기엔 어떠했을까?

【필로폰을 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재범을 하는데 그 중 50%가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옴(첫 재범 시점이 아닌 다시 검거되는 시점) 또 그 중 20%정도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의 경우처럼 나오자마자 필로폰을 해서 3일 만에 다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이제 내 몸 안의 필로폰 성분도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완전히 마약을 끊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끊었던 것이 아니고 없어서 할 수 없는 환경이라 못했던 것 뿐 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오자마자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나에게 필로폰을 주었던 그 선배가 검거되면서 투약자 5명만 잡아주면 자신을 보내준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나를 비롯한 7명을 밀고하여 또 다시 3일 만에 차가운 철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약 기운이 빠지니 너무도 비참한 내 모습이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을 다시 경찰서에서 봐야만 했던 내 어머니.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발악하는 나를 보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고개 돌려 우셨던 내 어머니.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있으니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유치장 화장실에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목을 매었다. 이

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도 누나도 더 이상 애 태우지 않고 마음 편히 사시겠지, 그리고 나 같은 인생은 하루빨리 사라져 주는 것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의식을 잃었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옷을 매어 놓았던 그 튼튼해보이던 쇠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바람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고 그 소리에 놀라 달려온 당직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응급조치로 살아남게 되었다.

다시 눈을 뜨니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까지 비참하게 되었을까? 하는 서글픔에 한없이 울었다.

냄새나는 담요를 덮어쓰고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다시 마음먹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기필코 마약을 끊어버리겠다고….

선고 때 판사님이 "출소하는 사람에게 다시 마약으로 유혹하고 건네준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마약사범을 잡는데 협조했을 지라도 그 죄가 경감되지 않는다"고 판결 주문으로 그 선배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판결했다.

나는 10개월의 형을 또 복역하고 2005년 3월 31일 새벽에 OO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하는 날 아침, 이전 사건의 발단 원인을 알고 계셨던 어머니가 그 쌀쌀한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며 교도소 앞 의자에 앉아 계셨다. 나 같은 놈도 자식이라고 춥다고 두꺼운 옷까지 준비해서 말이다.

사회로 나오자마자 예전의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연락이나 관계는 모두 끊어 버렸다. 그리고 마약은 혼자 힘으로는 정말 끊기 힘들고 또 언제 내가 마약이라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지 알 수 없기에 오로지 마약을 끊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재규 실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만났던 날 바로 마약중독자에서 회복자로 거듭나고 있는 한 여성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나는 빛을 만났다. 조헌수 전도사님의 인도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복음 메시지 하나하나가 모두 나와 연관되어진 얘기인 걸 느꼈다. 이때까지 나를 잡고 흔들었던 사탄과 마귀의 존재, 내가 왜 그렇게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과거를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고 마약을 끊기 위한 최고의 힘을 가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실시하는 '단약을 위한 라파(치료하시는 하나님)교정교실' 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약물 남용 및 중독의 폐해에 대해 강의를 듣고 내가 몰랐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NA모임이라는 중독자 치료모임에도 참석하여 서로 간 아픔을 공유하며 힘을 얻고 힘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나의 과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비행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 지나온 삶을 이야기 해주고 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으며 진정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약물중독에 대한 나의 경험이외에도 이론을 겸비하여 미약하나마 아직도 약물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자 약물치료전문가과정도 공부해볼 생각이다.

아직 나 역시 회복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활동과 일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일련의 활동이 나를 지키고 또 남을 살리게 되는 길임을 나는 믿는다. 참으로 쓸모없는 31년간의 삶을 살아왔던 내가 마약을 끊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정체성과 자아를 확립하는 데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의 역할이 컸다. 거듭 나를 살리신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님 이하 모든 스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나 역시 내 어두웠던 과거를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가만히 다짐해 본다.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헌신적인 단체와 사람들이 있으므로 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마약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과 영적인 시달림에 고통 받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길 바라며 꼭 마약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마귀와 사단이 더 이상 이 땅에 붙이지 못할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아! 정말 살 만한 세상이고 아름다운 계절이 아닌가?

유혹의 속삭임과 처절한 싸움

– 최 수 광

우리 사회 외진 곳에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마약중독으로 고통 받으며 체험했던 삶의 비애들과 처참함, 그리고 절망 등을 각성하는 마음과 참회의 심정을 고백하기위해 용기를 낸다.

짧은 내용이지만 나의 체험을 통한 참회와 고해가 마약의 실체와 허구성을 바로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먼저 나의 첫 마약경험의 동기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남들보다 다르다는 병적인 우월의식과 호기심, 그리고 유희에 대한 탐닉이 발단이었고 또한 미로 같은 나의 생활패턴에서 발생된 무력감도 작용됐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이렇게 시작된 첫 경험은 곧 습관이 되어 버렸고 마침내 마약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사용되었다. 모든 마약경험자들이 그렇겠지만 나 역시 마약과 함께 해온 삶은 언제나 정신적인 혼란과 감정혼란의 연속이었고 어느새 마약을 구하는 일은 생활의 전부로 다가와 있었다. 결국 나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 온갖 부정한 짓도 서슴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감당치 못할 고통을 안겨 주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려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런 감정을 잊기 위해서도 마약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견디기 힘든 자책감에 짓눌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려고도 했지만 행동으로까지는 이어가질 못했다. 결국 나는 주위의 환경과 문제를 만드는 삶의 조건들을 저주하며 고립과 부정 속에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내가 처음 마약 경험자가 되고부터 지금까지 마약으로부터 떠나있었던 기간은 구속됐을 때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했던 기간이 전부다. 그 나머지 기간 대부분은 마약에 의해 지배된 삶이었고, 그런 삶들은 본연의 삶까지 환각 속에 가두어놓고 말았다. 이렇게 나의 삶은 완전한 실패로까지 이어졌고, 가족들이나 친구들 혹은 일에 있어서 가치란 존재치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심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모든 것이 무기력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망상과 혼란스러움으로부터 구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새 삶의 맨 밑바닥에 와 있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도움을 청할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한 상대는 마약중독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난 친한 선배 형이었다. 그 선배 형의 존재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그 선배 형으로 인한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지금까지 환자였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생소하리만큼 남의 일 같았지만 결국에는 지난날의 몹쓸 기억들을 받아드리기로 했다.

당시 현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의 회복과 감정유지에 정신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생활 전반에 변화를 주기 위해 모든 종류의 마약은 물론 술, 담배의 유혹까지 뿌리치며 하루하루를 기도와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유혹의 속삭임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 처절한 싸움의 끝은 보이질 않았다. 고통에 지친 나머지 자살을 시도 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유혹에서 벗어날 길은 죽음밖에 없었다.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지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였다.

마약중독이라는 병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병임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그 병은 한 순간의 열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점차 정도가 심해지는 진행형이라는데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마약중독이라는 병의 회복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매 순간 다가오는 새로운 삶을 다지기 위한 기회들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행성인 이 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더 회복과 감정에 정신을 집중해 나갔다. 그러는 사이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한 나는 이 모든 원인이 마약의 시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 후로도 나는 고질적인 마약중독이라는 병의 후유증으로 시련과 고통의 나날을 겪다가 또다시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구속되어 5년형의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4년 1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마약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렇듯 한순간 충동에 의한 마약의 시작은 결코 자신이 원치 않는 생의 행로를 결정짓고 말았다. 나는 오늘 오랜 기간 동안 마약과 함께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순간순간들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더 중요한 가치를 가져본다.

지금까지 저는 마약중독이라는 병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부분의 실체들을 체험을 바탕으로 밝히면서 지금도 우리사회 어딘가에서 마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해 줄 것을 부탁한다.

첫째, 마약중독은 고질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을지라도 회복에는 절대적으로 책임을 갖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병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나 주위의 환경을 원망치 않고 회복의 문제와 감정에만 직면하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부터는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에 전념하길 바랍니다.

넷째,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의 방법을 배우는 데에 속히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다섯째, 마약중독치료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치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내와 정직과 열린 마음으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회복을 위한 과정들이 많겠지만 이 정도로 줄이겠다.

누군가 우리 인간들은 일정한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하면서 현재를 포함한 미래사회의 구조에 대한 변화까지 감지하며 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결코 이 사회를 떠나서는 그 존재가치를 찾을 수 없다할 것이다. 나는 오늘 마약이란 커다란 장애

물로 인하여 사람들의 존재가치가 퇴색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과연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불규칙적인 감정변화와 여러 번의 짧은 기억상실이 있었음을 밝힌다.

아직도 시련은 남았지만

ㅡ음국인

내 나이 서른아홉.

나는 아직 안개 속에서 서성대고 있다. 무겁게 내려 앉아 허둥대는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듯 하다.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데 어찌 이리도 헤매는지 모르겠다. 서른아홉이라는 세월의 절반을 마약(필로폰)으로 살아왔대도 과언이 아니다. 남은 것은 진창이 되어 썩어 문드러진 몸뚱이뿐, 저는 이렇게 절규하며 통곡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내게도 작지만 소박한 행복을 누렸던 적이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일찍 살림을 꾸미고 서로에게 정직하며 애틋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갔었다.

지극히 평범한 행복이었지만 그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갔었다. 그러던 어느날, 불행은 소리도 없이 내 행복 속에 파고들었고, 시비를 걸어 왔다.

마약이었다.

우연하게 접하게 된 그 마약은 그때부터 지독히도 떨쳐지지 않는 악몽이었고, 지금껏 내 행복을 무참히 짓밟아 왔다. 그렇게 불행은 시작되었다.

시작은 호기심으로 별 뜻 없었으나 이미 파고든 마약의 수렁은 차츰차츰 그 깊이가 깊어졌고 어두워만 갔다. 그렇게 착실하고 모든 일에 충실했던 내가 마약으로 인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던 아내는 절망으로 울부짖었지만 그것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마약 속으로 마약 속으로 빠져 버렸던 것이다.

마약으로 변해가는 남편을 지켜보면 절규하던 아내가 비장한 결심으로 급기야는 경찰에 고발까지 하게 이르렀다. 그 일은 이미 두 번의 구속으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난 후의 일이었다.

그렇게 맞이한 수용생활.

2년여 동안 아내의 심정은 어찌 처절하지 않았겠으며, 어찌 고통스럽지 않았겠는가. 아내의 정성어린 옥수발로 2년여의 옥고를 무사히 치루고 아내 곁으로 돌아갔다.

아내의 애틋한 정성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주어진 삶에 충실히 임했다. 가진 기술은 부족했지만 더 이상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겠노라 무던히 애를 썼다. 나만을 바라보며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던 아내를 위해서라도 결코 다시는 마약의 수렁에서 허우적대지 않으리라 다짐을 다지고 또 다졌다.

그렇게나마 마음을 다 잡고 살아가는 내게 유혹의 순간은 그다지 오래지 않아 또 다시 찾아들었다. 잊고 지냈던 친구가 우연히 내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것이다. 그 친구는 한눈에 봐도 그때껏 마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살아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순간 나의 잠재된 욕망이 동시에 꿈틀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마음속으로는 의지를 꺾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피어오르는 마약의 악취에 그만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다. 사랑하는 아내의 정성을 배반하고 그렇게 또 다시 마약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나마 아내에게 더 이상의 배신감만을 안기지 않겠다는 얄팍한 마음으로 아내 몰래 해온 마약이었는데 눈치 빠른 아내를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아내는 절망으로 울부짖으며 내게 매달렸다.

"여보, 당신을 이렇게 잃고 싶지 않아요. 제발 마약만은 멀리할 수 없나요? 당신, 날 위해서 정신 차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만 이미 마약에 팔려버린 심신은 도저히 제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으니 아내의 메아리는 허공만 가를 뿐이었다. 마냥 그 지경으로 미쳐가고 있었다. 아내는 물론 온 가족까지도 내팽개치고 도저히 사람의 몰골이라고는 할 수 없게 망

가져 버리고 있었다.

그런 남편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던 아내는 큰 결심을 한 듯, 나를 불러 앉히고 비장한 모습으로 준비한 면도칼로 자신의 손목을 서슴없이 그어버렸던 것이다. 손목에서는 선홍빛 피가 울컥 울컥댔고, 급기야 정신마저 잃어버린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아! 이 지경을 어찌 합니까.

어쩌자고 이처럼 허망한 현실이 되어 버렸을까요.

절망과 아득함뿐이었다.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의 붉은 핏물들이 온 방안을 휘적시는 처참했던 기억이 선명히 떠오른다.

다행히 아내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 왔지만 못난 이 놈은 그때의 허망하고 처연했던 기억을 망각해 버리고 천방지축 망아지마냥 또 다시 마약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 아내는 결국 제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에게 더 이상의 불행과 아픔을 안기지 않겠노라 순순히 이혼에 응했다.

바로 얼마 후, 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을 했지만 그것 역시도 못난 지아비를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아내의 마지막 고육지책 이었다.

허사였다. 그것마저도 허사였다.

나는 오래지 않아 다시 구속되어 후회만이 남는 수형 생활을 맞이해 버렸던 것이다.

"아! 무엇이 나와 아내에게 이토록 고통만을 준 것일까."

"오로지 못난 남편이지만 의지하고 사람을 만들어 보려 했던 착한 아내는 그 허망한 세월을 어찌 보상 받을 수 있으려는지요."

나는 지금 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수형 생활에서 남겨진 것은 진창이 되어 버린 병든 육체 밖에는 없었다. 두 쪽의 콩팥(신장) 중에 한 쪽은 이미 기능을 상실해 버렸고, 나머지 한 쪽의 콩팥마저도 거의 못 쓰게 되어 오래지 않아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까지 받게 된다는 진단까지 내려 진 상태다. 그런데 바보 같은 내 아내는 병들어 썩어진 그 몸뚱이마저도 부둥켜안으려 하고 있다.

나란 인간은 과연 타락의 끝이 어디일까. 아내와 인연을 맺은 지 어언 15년, 그 세월을 지내 오면서 아내에게 안겨 준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처절한 고통뿐이었다.

이제 지금껏 못나게 살아만 왔던 나 자신을 진실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려 한다.

어느 때는 화를 내고, 어느 때는 참아주고, 어느 때는 다독이고, 어느 때는 속아 주며 지금까지도 못난 지아비를 지켜주고 있는 아내에게 이제는 사람이고 싶다.

아직은 안개 속에서 허둥대며 헤쳐가야 할 시련의 몫이 남았지만 그 시련의 세월이 마감된 후에는 애처로운 아내를 위해서

꼭 사람으로 다시 서 보려 한다.

그래서 못다 한 사랑과 행복을 안겨 주겠노라 다짐 해 본다.

단란했고, 소박했던 그 예전의 행복을 되찾는 길이 멀고멀지만 아직 내게는 아내라는 희망이 남아 있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돌아보면 온통 부끄러움과 파렴치 투성뿐인 내 인생, 더 늦지 않게 진정한 깨우침을 불어 넣으려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보, 당신에게 미안할 뿐이야. 지금껏 나 때문에 삼켜야 했던 고통과 좌절 따위는 더는 안기지 않으려 해. 정녕 당신을 위해 살아 볼게. 사랑해!"

내 삶에서 빚어진 허상과 망상으로 더는 헤매기보다는 앞으로의 꿈과 소망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남겨진 시련을 잘 헤치고 이기려 한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켜주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몸도 마음도 망가진 채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의 나이를 코앞에 두고, 이제는 정녕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사람으로 태어나 보려 한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은 1893년 처음으로 합성. 1941년 일본의 한 제약회사가 메스암페타민을 philopon(히로뽕)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면서.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해져 용어로 사용. 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독성 약물로 쉽게 물이나 알코올에 녹는 희고, 냄새가 없으며 쓴맛이 나는 결정형 가루.

○ 향정신성 의약품과 메스암페타민의 정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되는 것. (5가지 종류)

– 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5종 중, 두 번째인 나목[1]의 4번으로 규정된 물질로 화학명은 (+)–2–methylamino–1–phenylpropane (동법 시행령 별표 4)

○ 메스암페타민 사용 관련 처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 매매 · 매매의 알선 · 수수 · 소지 · 소유 · 사용 · 관리 · 조제 · 투약 · 교부한 자(제1항 제3호)

1)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 상습으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1/2 까지 가중(제2항)
· 미수범은 처벌(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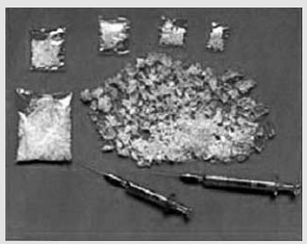
ㅇ 단기 효과

– 각성효과(주의력 증대와 피로감 감소)와 육체적 활동 증가, 입맛 떨어짐.
– 행복감과 강력한 쾌감
– 호흡 증가, 고열, 자극과민성(irritability), 떨림(tremor), 경련(convulsion), 공격성.
– 동물연구에서 1회 용량으로도 신경 말단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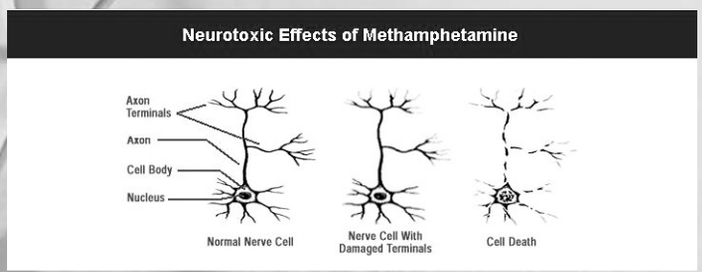
ㅇ 장기 효과

– 중독, 폭력행위, 불안, 정신착란, 불면증과 같은 증상과 편집증(자살 및 살인 등), 환청, 기분 장애(mood disturbances)와 망상(예,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과 같은 수많은 심리적 특징과 극단적인 폭력행위 및 정신질환으로 발전 가능.
– 내성
· 일부 중독자는 매 2–3시간 간격으로 계속 주사하면서 식사와 잠자는 것도 잊음.
– 금단증상
· 우울증, 불안, 피로, 편집증, 공격성과 약물에 대한 강렬한 갈구 등
–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
·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혈압 상승, 뇌의 미세혈관 손상으로 정상회복 불가능한 발작 등
– 과량 사용으로 인한 고열과 심한 경련으로 사망 가능.
– 만성적으로 남용하면 심장 내막에 염증(inflammation 생기고, 주사

사용자에게는 혈관 손상과 피부농양 발생.
– 사회적 직업적 퇴보.
– 정신병적 증상은 사용 중단 후 몇 달 또는 몇 년 지난 다음 발생 가능
– 임신 중에 사용하면 미숙아 출생률 증가, 비정상적인 반응과 극도의 과민반응과 같은 신생아의 행위 양상의 변화와 같은 문제 발생. 선천적인 기형아 탄생 가능성.
– 남용자에게 HIV와 B형 간염과 C형 간염 감염(최근 한 연구에서 마약 사용자의 60%가 C형 간염)
– 기타
· 발작과 체중 감소, 골다공증(치아, 뼈 등 약화), 당뇨병, 다양한 순환기계 질환
· 사용 중단 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는 도파민 손상.



〈 필로폰의 신경독성 효과〉



(자료 : 김대진 교수(부천성가병원) 제공)

4

그리고 다시

일어서며

후회로 채워진 과거

– 정 덕 영

내 나이 벌써 마흔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뿐이다.

그러나 후회만으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란 걸 지난 3년 동안 단약하면서 깨달았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는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여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다. 그 당시의 보통 집안처럼, 아버지는 매우 엄했고 어머니는 항상 자애로웠다. 나는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큰 기대를 받고 자랐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직접 한자를 배웠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계속 반장을 했고, 방과 후에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했다. 당시 아버지는 오토바이 광이셨는데, 딴 짓을

하다가도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아버지는 밤12시고 1시고 시간 개념 없이 집에 돌아오시면 매일 공부를 가르쳤다. 항상 회초리는 옆에 두셨다. 공부에 점점 흥미를 잃었으나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반장을 했고 성적도 매우 좋았다.

4학년 2학기에 들어서 아버지 공장이 파산하게 되자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사 후에는 철물점을 하시면서 조그만 공장도 다시 시작하셨다. 이 일로 아버지는 나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내 자신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집에서는 다시 과외공부를 시켜주었으나 중학생이 되자 혼자 공부해야 한다고 과외를 중단시켰다. 결국 더욱더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었고 사춘기로 접어든 나는 공부외의 다른 곳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책가방에는 교과서는 없고 만화책과 나쁜 책들만 넣고 다녔다. 아버지는 내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한겨울 밤에 발가벗기고는 밤새 집밖에서 벌을 서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나를 때렸다. 또한 한 애기를 계속해 진저리가 나게 하였다. 어떤 때는 하루 반나절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기도 했다. 결국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시작했고, 반항의 수단으로 담배며 본드를 하기 시작했다. 학교 안과 밖에서도 틈만 나면 본드를 불었다.

아버지와의 불화는 더욱 커져갔고 결국 가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에 다닌 것을 다 합해도 한 한기 정도에 불과했다.

주위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고 자연적으로 불량청소년이 되었다. 늘 패싸움을 하였고 싸움은 독하게 했다. 그래서 독종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불량청소년과 어울리면서 학교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낮에는 당구장,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이트클럽에서 DJ를 하면서 필리핀 밴드들과 친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밴드의 리더가 작은 알약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다. 며칠 후 그것이 환각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들로부터 20알 정도를 얻어먹자 배가 뒤틀려 화장실에서 계속 구토하였다. 너무 힘들어 테이블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는데 꿈을 꾸는 듯한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저녁만 되면 매일 약을 하게 되었고 점점 빠져 들어갔다.

이후 호스트바에서 3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때 이곳에서 우연히 손님으로 찾아온 일본여성고객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필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그녀가 필로폰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다른 약물을 사용해본 경

험이 있던 나는 좀 달라고 요구하였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결국 나에게 주사를 놔주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 한국에 오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마약에 빠져 들어갔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날 즈음, 호스트바 사장이 나와 일본 고객과의 관계를 알게 되자 일본고객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요구했고, 그 일본고객은 더 이상 호스트 바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마약을 중단하고자 노력했으나 금단증상의 고통으로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사용했던 알약을 대용하게 되었다. 얼마 후 호스트바에서 5년 연상의 미국 여성을 만나 동거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사업으로 바빠 집을 비우게 되는 일이 많아지자 나는 그녀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바에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낙했고,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카운터 일을 맡게 되었다. 클럽에서 많은 여성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동거녀와의 다툼이 많아졌다. 다툼이 일어나면 나는 화를 내고 집을 나와서는 어수선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약을 먹었다. 또한 일이 끝나도 약을 구해서 먹기까지 되었다.

미국 여인과 동거하던 기간이 2년이 지날 즈음, 클럽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클럽 마담아가씨가 술에 너무 취해 택시를 잡아주려고 했는데 "도와달라면서 나에게 기대었다.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집까지 함께 와 방 열쇠를 찾으려고 그녀의 손가방을 열었더니 몇 개의 주사기가 있었다. 주사기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일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다. 마약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결국 그녀와 같이 마약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침대 밑의 상자에서 부서진 나뭇잎을 보여주면서 이게 대마초라고 하며 함께 피우자고 하였다. 대마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해보게 되었다. 대마초를 피웠으나 아무런 느낌도 없고 단지 쑥 타는 냄새 비슷한 것만 느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흘렀을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온 몸이 예민해지고 성적 충동이 솟아올랐다. 이후 틈만 나면 그녀를 찾아 마약과 대마초를 했다.

이런 이중생활을 3년 정도 했을 때, 미국인 동거녀의 갑작스런 본사 발령으로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허무하면서 외로웠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더욱더 마약에 빠져들었고 클럽 마담의 집에서도 계속 마약에 취해 살았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집에 와보니 동거녀로부터 영어편지가 와 있었다. 영어를 몰라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던 나는 그 편지를 갖고 호스트바의 사장을 찾아가 사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미국의 동거녀는 함께 살았던 집을 팔아 조그만 장사라도 하면서 계속 연락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지만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단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집을 팔고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에서 카페를 차렸다. 장사라도 하면 마약도 안하고 모든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단골도 많아지고 카페는 잘 운영되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단조로운 생활이 점차 싫증이 났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너무 갑갑했다. 이때는 며칠에 한번정도로 대마초는 했지만 필로폰은 하지 않았다. 절제하면서 끊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았다.

카페를 한지 만 4년 만에 처분하고 옷 가게를 하였다. 옷가게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결국 옷가게를 정리한 다음 용산전자상가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였다. 수입도 좋았다.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다.

한번은 용산전자상가에서 동남아로 외국 출장을 갔다 온 친구가 이상한 알약을 몇 개 가지고 와서는 먹어보라고 하였다. 한 알을 먹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반문하자 태국에서 몇 번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말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먹었다. 얼마 지났을까, 몸에 약간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 먹었던 약과 대마초를 같이 했을 때의 기분과 비슷했다.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갈 때면 나는 술 대신 약을 사용했다. 약 이름은 몰랐지만 1개 이상은 먹지 않았다. 정신이 흐트러지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 그 친구에게 그 약을 다량으로 구입해 줄 것을 문의하자 그 친구는 위험해서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용산전자상가 생활도 2년이 넘은 어느 날, 옆 건물의 사장이

사기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나 자신도 그에게 가진 전 재산을 사기 당하고 결국 가게를 닫게 되었다. 내가 가진 재산이라곤 가게를 정리한 돈 3천만 원과 전세 집 그리고 차 한대 뿐이었다. 당시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였던 여인이 있었다. 양가 부모로부터 결혼을 승낙 받고 행복에 들떠있던 시기에 터진 이 사기사건은 나를 다시 절망케 했다. 전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마약을 구하고자 옛날 마약했던 곳을 돌아다녔으나 모두 없어졌다. 물어물어 ○○지역에 가니 한 아주머니가 접근해서 알약을 두 봉지 구입하여 모두 먹고, 정신을 잃었다.

약혼녀는 나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자 나의 뒷조사를 하였고 결국 사기사건과 마약을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당시 나는 늘 약물에 취해 있었고 약물이 없으면 뭔가 실연당한 사람처럼 억울해 하면서 하염없이 우는 등 우울증 증세에 시달렸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내가 떠나는 것이 사랑하는 약혼녀를 위한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집을 떠난지 15년 만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생활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단지 약혼녀와 헤어져 좀 이상해졌다고 느낄 뿐이었다. 집에서도 끊지 못하고 몰래 대마초를 조금씩 했다. 결국 어머니는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정신병원 생활은 너무 힘들었다. 독방에 갇히고 온몸을 묶이고….

3개월이 지나자 약간 적응이 되었으나 정신병원에 왔다는 사

실이 용납되지 않았고 부모가 원망스러웠다. 6개월 뒤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약을 구하러 다녔다. 그러나 원하는 약을 구하지 못하고 알약과 대마초를 하면서 신세한탄만 거듭하며 방황하다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

3일 만에 깨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부터는 어머니의 패물 등 돈이 되는 것을 훔쳐 전당포에 맡기고는 약물을 했다. 약물에 취해 아무데서나 자고 노숙자들이 밥을 먹는데서 밥을 빌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일주일동안 밥도 먹지 않아 산송장과 같은 모습이었다.

결국 지하철 안에서 쓰러져 눈을 뜨니 정신병원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사고를 쳐 강제퇴원을 당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약물 중단을 위한 혈서를 쓰고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거리를 찾았다. 그러나 나를 위한 일자리는 없었다. 정수기 외판업은 오히려 나를 골치 아프게 했고 삶에 회의를 들게 해 다시 우울증을 겪게 하였다. 나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퇴원한 다음, 직업을 계속 찾았다. 수많은 곳을 두드렸으나 나를 원하는 곳은 없었다. 그러던 중에 대형 회집 지배인으로 채용되었다. 월급은 그런대로 만족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의지와 달리 몸이 말을 듣지않아 두달이 채 되지 못해 포기하고 말았다. 마약에 대한 유혹이 항상 따라다녔고 몸이 지칠수록 마약의 충동은 더욱 강해졌다. 나는 직장을 포기하고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에 들어갈 생각에 마약이나 실컷 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흥청망청 쓰고 다녔다.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잡혔고, 경찰서에서 죄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경찰과 싸우게 되고 결국 검찰에서 악질로 찍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때가 1999년. 초범이라 47일 만에 구치소에서 출감했지만 즉시 마약을 하러 다녔다. 완전히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완전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부모도 호적을 파서 나가라고 말할 뿐 받아주지 않았고 동네에서도 나를 부담스러워했다. 결국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는 그 길로 집을 나와 노숙자가 되었다. 아버지와 다툰 것에 대한 죄스러움과 약물을 끊어보자는 생각에 병원 입원을 요청하였고, 당시 노숙자 신분으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퇴원 후 직접 찾아갔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송천쉼터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몇 사람이 있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는 쉼터 식구들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으며 보람을 찾게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마약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다고 단정했지만 마약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내 모습에 기분이 너무 좋았고 아침이면 몸이 개운하고 상쾌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유혹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송천쉼터 생활 7개월이 되자, 나는 인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교회로 갔다. 그곳에서 일을 도우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당뇨라는 고질병이 있어 다시 송천쉼터로 되돌아왔다.(마약을 너무 오래해서 당뇨가 매우 심하고 이빨도 20개 정도 빠졌다)

송천쉼터는 집같이 편하고 좋았다. 잃어버린 나를 송천쉼터에서 찾았고 성숙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 힘들었던 생활이 보람으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서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로 변한 내 모습에 감사한다. 이렇게 된 것은 나 자신의 노력도 있지만 송천쉼터가 내가 단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쉼터생활 하면서 나는 1년 동안 일기를 썼다. 지난 일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제발 도와 달라고 기도하며 항상 일기 마무리에는 아멘으로 끝을 냈다. 과거에는 약물재활공동체가 없어 마약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조차 몰랐고 문제를 말할 수도 없었다.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지만 말썽만 부려 독방에 묶였던 기억밖에는 없다. 그러나 송천쉼터에서의 생활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신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이 되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신학생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약물과 싸우며 고통과 고난에서 시달리는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을 도우는 도우미로 변한 내가 뿌듯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설수 있을 때까지 무수히나 자신과 싸웠다. 지금도 싸우고 있다. 아니 영원히 계속 싸워야 할 것 같다.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마약을 했던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과거의 아픔도 남아있을 것이고 회복의 기쁨도 간직하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길 원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맛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까.

서른 살의 평범한 여자이고 싶다

—박희진

내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생각나게 한다. 왜? 어쩌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인지.

죽음을 선택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내가 아닌 존재로 살아왔던 지난 13년의 세월 속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왔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던 기억들,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들, 나의 의지로 끊을 수 없었기에 몸부림치던 기억들….

나는 여자이다. 그러기에 더욱 울어야했던 아픈 기억들의 흔적은 내 영혼을 무참히 짓밟았던 마약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작

되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1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엔 호기심도 많았고 궁금한 것도 많았던 그런 평범한 아이였는데, 마약의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비롯되었다.

처음부터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학교에서 일명 논다는 애들, 곧 '날라리' 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부터였다.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함께 하게 되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본드와 가스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다. 한 두 번의 경험이 어느 덧 중독으로 이어졌고 점점 약물이라는 놀이에 나도 모르게 깊이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저 그 아이들과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놀이에 이유 없이 빠져있었고, 함께 하는 것이 모두 신기했을 뿐이다. 그 때만해도 중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중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던 나는 넉넉지 못한 형편에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던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 후 부모님을 핑계로 가출을 하게 되었고, 잦은 가출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도 계속 되었다. 결국 가출이 문제가 되어 고등학교를 얼마 다니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다.

학교를 그만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거리를 배회하며 본드와 가스를 하는 것뿐이었고, 그 후 친구의 소개로 밤업소에 들어가 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평범하던 우리 가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가족을 떠나 있었지만 가족의 생계만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밤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 곳에서 전혀 본적도 없는 새로운 약물을 접하게 되었다. 그 마약은 누바인이라는 약물이었다. 주사기를 사용해 누바인을 투약하는 언니들이 이상하고 징그럽게만 보였고,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멀리했고, 그 언니들을 상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나에게 본드와 가스를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다가온 약물은 일명 '땅콩' 이라는 약이었다.

처음 사용했을 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 자신이 선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약이 떨어지면 내가 보았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고, 나는 점점 예민해져 가고 있었다.

밤 생활에서 접하게 된 땅콩을 시작으로 나는 대마초류도 알게 되었고, 대마초와 땅콩(화이트킹)을 함께 하는 날에는 세상에서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것이 내겐 없었기에 나는 점점 더 깊은 마약의 수렁에 빠져들어 가고 있었다.

그런 약물은 나에게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고 즐거움만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에 나는 멈

출 수 없었고, 밤 생활에 대한 힘겨움과 수치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기에 오히려 더욱 더 깊이 빠져가고 있을 그 무렵, 내가 상대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날부핀이라는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되었다.

날부핀을 하게 되면서 내 팔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 손님이 그런 내 팔에 주사 바늘 자국을 보더니 필로폰을 하냐고 물어보면서 나에게 필로폰을 권하였다.

필로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호기심 때문에 하게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약물보다 더 크고 강하게 뇌를 자극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알고 지내는 오빠에게 필로폰을 구해 매일 마약에 빠져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왔고, 필로폰을 판매하는 서울 사람을 만나면서 더 깊은 마약 중독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체, 내 몸속에 마약을 넣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필로폰을 하는 것이 그다지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었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신고로 검찰에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구속될 당시만 해도 내가 필로폰을 사용한 것에 대한 죄책감보다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다는 분노가 더 컸었다. 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나는 재판을 받고 나와서도 필로폰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것이 훗날 내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슬픔과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으로 남게 될지 꿈에서 조차도 몰랐다. 단지 억울하다는 생각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불평 그런 핑계들로 스스로를 마약의 포로로 몰아간 나는 철부지 바보였었다.

구속이 되면서 살이 많이 불었기에 나는 다시 살을 빼고 밤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사랑을 알게 되었다. 나에겐 첫 사랑이었고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은 필로폰을 그리 많이 사용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중단한 것도 아니었기에, 그 사람이 모르게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로폰을 주는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필로폰을 멈추지 못했던 나는 집행유예로 사회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되고 말았다.

처음 구속되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회에 있는 가족들과 내가 하던 일에 대한 타격이 더욱 크다고 생각했기에 좌절했고 죽고만 싶었다. 3일 동안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 그러다가 내 눈에 띈 것은 손목을 그을 수 있는 물건이었고, 화장실에 가서 손목을 그어봤지만 상처만 남고 동맥은 끊어지지 않았다. 자살의 실패 후 정신을

차린 나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잠들기도 했고 밥을 먹으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한줄 한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같은 방 동료들은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불쌍한 처지를 쓰라고 했지만, 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의 죄를 삭감 받고 싶진 않았기에 진실로 내 마음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구속 된지 한 달 만에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 다가왔다.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다. 책임지지 못할 일이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또 다시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었고, 1심 재판에서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게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컸던 탓인지 양수가 터져서 항소를 뒤로하고 형 집행정지를 받고 아이를 출산하러 사회로 나가게 되었다.

아이를 출산하러 사회에 나가 지옥 같은 그 곳으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비로소 깨달으며 스스로 감당하리라 다짐하였다. 나는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벌금형으로 다시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사회로 돌아온 나는 한 동안 열심히 살아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매일 반복되는 가정의 불화와 밤 생활의 염증을 느낀 나에게 마약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고, 다시금

필로폰에 손을 댄 나는 또 다시 구속되고 말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아니 평생 뽕쟁이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원망을 했다. 신이시여 진정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 후 재판과정에서 다른 동료들도 놀라고 나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또 다시 집행유예로 사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자기 버릇 개 못 준다' 고 했던가? 필로폰은 마치 나에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고 내 생활에 일부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출소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 이유를 왜 '마약은 단 한번이라도 하면 안 된다' 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방황을 거듭하던 나는 어느 날 마약을 함께 하던 친구의 손에 이끌리어 당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근무하던 성윤이 오빠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자리했던 신 목사님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와 같은 중독자이셨던 그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신다는 말에 처음에는 그리 큰 감흥을 받지 못했었다. 그 만큼 나에겐 마약의 비중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친구의 손에 이끌리어 한두 번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차차 내 마음은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마약에 대한 강한 유혹만은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그 친구가 구속되었고,

신 목사님께서 너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시며 목사님 댁에서 함께 치료해 나가자고 하셨다. 나는 목사님 댁에서 기거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은혜 체험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다. 필로폰을 몸에 넣었을 때보다 은혜의 체험은 나에게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매일매일 나는 약을 중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지게 되었고, 항상 어두운 세상만 보고 살았던 내가 빛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 곳에서 만난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의 가족들이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내게 진심어린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면서 나도 변해갔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교회' 에 나가면서 나는 잠시 마약을 중단 하게 되었다.

살아오면서 처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나에겐 은혜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큰 기쁨이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나는 또 다시 마약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때 마약의 경험은 즐거움이나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다는 마음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경험이었고, 업소에 나가 돈을 벌기 위해 졸음을 참기 위해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였지만, 나의 의지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마약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마약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사오니 저를 도와주소서!" 눈물로 기도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다시 놀라운 은혜 체험과 동시에 마약을 중단하게 되었다. 마약을 함께 하던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은 체 매일매일 공동체의 가족들과 보내면서 회복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난 완전히 마약을 끊은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중단하고 있을 뿐이며, 회복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일 것이다. 마약과의 길고 힘든 투쟁은 내가 저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계속되겠지만, 나는 마약중독자라는 멍에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할 것 같다.

장애인들은 그들을 비장애인들과 똑 같이 바라봐 주길 원할 것이다. 나도 마약중독자가 아닌 30살의 평범한 여자로 불리며 살아가고 싶다. 물론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이기에, 내가 항상 바라던 삶을 살고 있는 나는 행복하다.

과거에 마약을 했다고 해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 마약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온다. 그리고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 마약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젠 말하고 싶다.

"어두운 곳에 있지 말고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또한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마약은 그 어떤 호기심에서라도 단 한번도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지금 많이 회복돼 있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족이 된지도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하나님과 신 목사님,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순간의 쾌락과 인생을 바꾸지 마십시오, 절대!

—우 형 주

서서히 공기가 훈훈해 지는 게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6월의 요즘이다.

바로 앞 벽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

"사람은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 도전하고 설계 할 수 있다."

나는 이 문구를 같은 곳에서 한번도 아닌 4번이나 마주하고 있다. 오후 교화 TV시청 후 '마약체험수기' 공모전이 있다는 자막이 흘러 지나간 후 왠지 멍한 것이 이 생각, 저 생각을 해 보게 한다. '휴~ ' 하고 한숨이 나오는 동시에 졸필이지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지난 32년이란 세월을 적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리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한명의 여동생과 행복하게 살아왔다.

아버지는 고향이 충청도 천안으로 어머니를 만나시려고 그리 되신 건지 인천으로 연고지를 옮기셨고, 맨손으로 시작하시어 길거리 노상에서 불량식품인 설탕 볶기 장사도 하시고 틈나는 대로 기술을 배워 인쇄소에 취직을 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며 가정을 이루셨다. 한 푼, 두 푼 돈을 저축하시고 살림을 늘려가며 우리 두 남매 키우는 재미가 그리도 행복하셨다 한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 때문인지 나는 무난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아버지께선 스스로가 못 이룬 대학이란 큰 벽을 핏줄인 아들이 꼭 진학하길 바라는 마음이 무척이나 크셨다. 허나 제 인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바뀌기 시작하였다.

말로는 호기심 많은 나이는 지났다고 그렇게도 불러 외쳤으면서도 대입시험을 1개월 남겨 둔 10월 초쯤 친구로부터 받은 전화 한 통.

"야! 너 히로뽕이란 마약 해 봤어?" 라는 내용의 말 한마디.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 정말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해 보고 싶었던 호기심이었는지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지금의 나라면 절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을 텐데…."

이 글을 쓰면서도 한숨만 나온다.

친구를 만났더니 히로뽕이란 마약이 아닌 염산날부핀이란 진통제 약을 주사기에 담아 주었다. 그 자리에서 주사기에 투약을 하고 말았다.

약을 투약하면서 몸은 점점 약물에 익숙해져갔고 생활은 나태해져 부모님의 소원이었던 대학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고,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하였다. 그즈음 자연스럽게도 너무나도 무서운 히로뽕이란 것을 접하게 되었다.

재수하면서 부모님이 주시는 학원비며 온갖 거짓말로 부모님에게서 타 낸 돈으로 마약에 젖어 지내다가 결국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는 못된 버릇마저 생겨 1996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OO구치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50일을 수감한 후 집행유예로 출소하였다.

반성하고 뉘우친 것도 없이 출소하자마자 구치소에서 알게 된 선배, 지인들로 인해 한층 더 깊이 마약에 빠지게 되었다. 마약을 쉽게 구하고 쉽게 투약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 이젠 투약자가 아닌 판매자로서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또 10개월 만에 구속되어 2년이란 세월을 군대도 갈수 없는 면역자가 되어 또 다시 수감 생활을 하였다.

저의 어머니는 교도소 접견실에서 처음 마주보며 목메어 우시면서 "어릴 적 해맑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다"고 하시며 몸저 앓아누우시다가 결국엔 혹이 생기셔서 대수술을 받으셨다. 그해 아버지께서는 힘들게 모으신 돈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IMF로 인해 부도라는 아픔을 겪으셨는데 사

업실패보다는 저로 인한 충격이 몇 배로 크셨다 한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삶에 대한 각오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출소하여 정말 열심히 살았다. 2001년에는 가정을 이루어 결혼도 하였건만 1년을 채 버티지도 못하고 생활고가 힘들고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금 마약에 손을 대어 또다시 구속되어 2년 4월이라는 수감 생활을 하였다.

마약을 하는 선배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듯 어찌 보면 절대 헤어 나 올 수 없는 길을 걷는 듯 내 삶은 마약에 푹 빠져 있었다. 나 스스로 조금이나마 느끼고 깨닫게 한 것은 1년을 만나 서약을 하고 한평생을 같이 하자고 맹세한 아내와의 이혼이었다. 이 이별은 나 하나만이 아닌 우리 가족에겐 더 없는 아픔이었으며 나에겐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으로 다가 왔다.

2004년 6월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다시금 사회의 구성원으로 첫발을 디뎌 지인의 도움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원으로 취직하여 하나하나 착실히 공부하며 희망의 끈을 잡고 살아가면서 비로소 참된 행복의 가치를 알았다.

열심히 살다보니 지인의 소개로 다시금 학원 강사를 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미래를 약속하였고 아내 역시 부지런히 노력하였다.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더욱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라는 지표를 던져 주었건만 이 못나고 어리석은 자는 마약이라는 것에 또 다시 무릎을 꿇고 말아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이 지금의 현실을 대신하지 못하건만 나약한 것인지 인내가 부족한 것인지 마약 앞에만 서면 주저앉고 말아 버린다. 지난 10년을 후회하면서 살았건만 또 다시 후회를 거듭하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린 내 모습이 이젠 부끄러움을 넘어서 죽고 싶기만 합니다. 이젠 더 이상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잃고 싶지가 않다.

하루에 한번씩 출근하기 전 무거운 몸을 이끌고 1회 차 면회를 하고 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아픔에 너무 슬프다. 내 자신 스스로가 치유해야 될 아픔이기에 모진 마음으로 입술을 깨물어 본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2세가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데, 어느덧 환갑을 앞둔 부모님은 10년을 이렇게 망나니 같이 사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눈물만이 흘러내린다.

이제는 한 가정의 지아비로서 못난 아들이 아닌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한번 살아보려 한다. 그동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해이한 정신 상태로 살았는지 한심하고 어이없는 인생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진정 깨닫는다.

어떠한 재판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다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글로써나마 내 심정을 동봉해 가슴 속

깊이 간직하려 한다.

그리고 크게 외치고 싶다.

"잠깐의 짧은 즐거움과 쾌락을 스스로의 인생과 바꾸지 마십시요! 절대…."

내 자신이 그들을 버렸다

—홍 범 규

영등포구 당산동 마약퇴치운동본부 송천쉼터 옥상에서 한강을 바라본다. 참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십여년의 세월을 약물과 술로 흐릿한 세상만 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바삐 달려가는 차들만 보아도 그들의 생활이 아름답게 보인다.

약물로 세상을 거부한 채 그늘 속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뉘우치며 그 시절을 생각해 본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시던 아버지 심정이 가슴시리도록 헤아려진다. 외아들이라 나에게 기대가 크셨던 아버지는 내 학교 성적이 하위권에 맴돌자 실망하시고 술을 드시기 시작했다. 술을 드신 채 나와 가족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게 되었다.

자식을 사랑하시는 마음도 모르고 어린 나는 방황을 하게 되었다. 자연히 같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담배와 술을 배우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마약의 길에 들어선 것일지도 모르겠다. 청소년 때의 담배와 술은 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동네를 활보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간경화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겐 슬픔보다는 자유로움이 먼저 느껴졌다. 매일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하게 보내던 어느 날 친구가 이상한 제의를 해왔다. 음악하는 형들이 환상도 보인다며 웬만큼 노는 아이들은 다 먹는다고 권유하였다. 무서웠지만 호기심과 '남들 다하는데 나는 왜 못해' 라는 생각에 먼저 하게 되었다.

'노란 알의 러미라'. 이것이 나의 인생을 앗아간 긴긴 약물중독의 시작이었다. 내 나이 18세 때 일이다. 약을 먹은 뒤 한 시간쯤 흐르자 속이 울렁거리며 어지러웠다. 몸을 못 가누며 그날은 그렇게 끝이 났다. 다음 날 그 친구가 또 찾아와 또 먹자는 것이다. 친구에게 어지럽고 울렁거려 못하겠다고 하자 친구는 저를 보며 '야! 오늘은 진짜 보내 줄께' 하며 약을 내밀었다. 또 한번의 호기심에 그 약을 먹었다. 한 시간 쯤 흐른 뒤 또 속이 울렁거리며 어지러웠다. 순간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하늘을 날고 처음 가보는 곳에 있고 참 이상한 세상을 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날마다 그 약을 먹게 되었다. 그 약 없이는 밤을 보낼 수가 없었다. 약과 술과 음악, 그리고 여자친구 그렇게도 멋있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 "야, 약만 하면 뭐하냐? 이 바보야. 이거 대마초다. 한번 해봐"하며 권했다. 그날 나는 지금까지의 세상보다 더 짜릿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젠 주머니에 돈보다 약물이 있는 것이 더 든든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보다 못한 선배분이 찾아와 이렇게 살지 말고 자신과 함께 일을 하자면서 선배가 운영하는 당구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청소와 카운터 일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카운터를 보는 중에 거스름돈 계산이 잘 안되는 것이었다. 뺄셈, 덧셈이 안 되었다. 그렇게 간단한 계산이…. 몸은 몸대로 엉망이었다. 숨이 차고 심장은 불안하게 마구 뛰고, 성격도 이상해져 손님들과 싸우기도 수차례, 나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해졌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절제도 되지 않았으며 심한 공황증세, 금방 죽을 것 같은 공포심, 약물과 술의 금단증상…. 이렇게 정신장애가 온 것이다.

그래도 선배는 '약물만 끊어라,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고 위로하며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그러나 병원은 끝내 거절했다. 내 생각엔 내가 정신병원에 갈만한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 약물의 갈망에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영업이 끝난 뒤 친구를 불러 몰래 약물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약물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가게에 들린 선배에게 이런 나의 모습을 들키고 말았다. 나는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해서 그곳을 도망치다시피 나왔다.

다시 악의 소굴로 돌아온 나는 '내가 할일은 역시 즐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망가져 갔다. 이젠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즐기며 살아갔다. 주위에서는 이미 약쟁이라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 그러나 그런 말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다. 약물만 있으면 아무도,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때로는 끊어보려 했지만 이미 그것에 깊이 맛이 들린 나는 무기력했다. 약물의 양도 점점 늘어가고….

그러던 어느 날 폭력사건으로 구치소를 가게 되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다. 성경책을 보고, 기도를 하며 약물을 끊기로 굳게 다짐을 했다. 출소 후 취직도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았다.

그러나 그 악의 뿌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내민 약물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늘만 할꺼야' 라며 스트레스만 풀고 다시는 하지말자라는 생각에 손을 내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약물을 다시하다 보니 게을러져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활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집안 식구들에게 회사에서 배운 기술로 사업을 하겠다고 유망한 사업이라고 설득해 사업을 시작했다. 여유롭게 약물을 즐기려는 나의 계략은 맞아 떨어졌다. 일은 남에게 맡겨놓고 나는 약물을 즐기고….

이런 상태에서 사업이 잘 되었겠는가? 늘 약물에 끌려 다니며 망하기를 거듭했고, 이젠 끊어야지 마음을 먹어도 그때 뿐 어느새 약물과 대마초에 젖어 술집에서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돈도 건강도 다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체 폐인이 되어, 약물과 대마초가 없으면 술로 세월을 보내고 돈이 생겨 약물과 대마초를 구하게 되면 또 환락의 세계에 빠져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심장이 뛰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이대로 죽나보다 싶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야기를 들은 의사선생님은 정신과로 찾아가라고 하셨다. 정신과로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했다. 의사선생님은 약물과 술, 대마초로 인해 건강이 위험하다고 입원을 권해 입원하게 되었다. 그 오랜 방탕한 세월이 나를 철저히 망가뜨렸고, 세상의 쓰레기로 만든 것이다.

이젠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3개월 입원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고 교육도 열심히 받았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갈 곳도 없었다. 식구들도, 친구들도 이젠 내 곁에 없었다.

그러던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송천쉼터 생활지도사를 만

나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직원분들과 동료들, 전도사님의 보살핌으로 단약, 단주의 마음을 먹고 생활하고 있다.

이곳에 오게 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단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나도 마음을 잡아본다. 단약과 교육 그리고 공부를 통해 중독이 되어 있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새 마음을 꿈꾼다. 그리고 내 식구, 내 친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내 자신의 환각만을 위해 그들을 버렸던 나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여기에 오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마약과 함께한 지난날

—임 진 성

칠흑처럼 캄캄한 어둠을 바라보고 있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수의로 흘러내린다. 지금껏 나의 인생을 갉아먹은 마약과 함께 시계추처럼 반복된 삶을 살아온 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걱정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다시는 생각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고 없앨 수만 있다면 손톱만큼의 흔적도 남김없이 나의 머릿속에서 모두 깨끗이 지워버리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나는 지난날의 내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오를 때마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때는 순간의 쾌락과 방탕한 생활로 무너질 대로 무너졌기

에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죽는 것이야말로 마약과 인연을 끊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자문까지 해보았지만 그것은 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기에 요즈음은 책 속에 파묻혀 지내면서 진지하게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은 더 많은 것,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던 내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라는 책은 읽을 때 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의 뜨거움이 쏟아진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른 채 쾌락과 물질의 더미에만 집착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이제는 영적인 마음과 사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곳에서 읽은 많은 책들은 가족들에게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던 영혼을 변화시켜 주었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는 의지를 만들어 주었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도 출소하면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말아야지 하고 말로만 다짐을 하여 사회에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망각 속에 빠져들었기에 이제는 글로써 흔적을 남기어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걱정해주는 모든 분들께 다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약이라는 늪에는 빠지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울러 내 자신이 마약 속에서 살아온 결과는 모두가 떠나버리고 혼자 남겨진 것과 주위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며 결국은 마약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더 늦기 전에 마약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깨달아 마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친구의 유혹에 의해서 시작된 마약이 나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큰 고통 속에서 지내게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다. 항상 말로는 마지막이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계속되는 쾌락의 도구인 마약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가 되었고 결국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모두 탕진하고 교도소와 인연아닌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나의 반복되는 생활에 지친 아내는 더 이상 나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은 가정이 파탄되어 이산가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형제, 친구, 지인들까지도 등을 돌렸다. 모든 것은 나의 잘못된 인생으로 인하여 생긴 업임을 알게 된 요즘은 남몰래 흐느끼며 밤을 지새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예전에는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출소하여 나에게 연락을 하여 또다시 마약을 하게 돼 모든 것이 남의 탓 인양 남을 원망도 많이 했고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 자신이 부끄럽다. 모든 것은 내 자신이 심적으로 나약하였고 어떤 경우라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것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감정조차 바로 잡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혹 속에서 방황하는 몸과 마음을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뿌리쳤기에 어쩌면 지금 흘리는 후회의 눈물은 가당치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이제는 불혹의 나이를 넘고 보니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못난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아내와 자식들이 그리워지고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내 남은 인생을 가족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지난날 가장의 빈자리로 인하여 가족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고 가족이 나를 필요 할 때 나는 등한시 하였기에 나의 눈가에서는 쉴 새 없는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왜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그때는 몰랐던 것인가?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니 코끝이 시리고 가슴이 저린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간 가족들 얼굴이 담긴 사진이지만 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반면에 참으로 오랫동안 내가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는지를 알 것 같고 가족들을 살피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정말로 찢어지게 아프다.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 스스로 가족에 대하여 묻고 살필 때마다 과거의 내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족에게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젊은 날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되찾기까지 너무 멀리 돌아서 왔지만 그런 깨달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젠 나는 온 가족이 예전처럼 다시 모여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하여 방탕생활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못 다한 아버지 노릇과 고생만 한 아내에게 자상한 남편노릇을 할 것이며 못난 아들이지만 잘되기만을 기다리는 부모님께 꼭 효도를 하겠다. 꼭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시련의 문 너머에 있는 우리가족들에게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나에게는 마약은 관계없는 단어다.

세상에서 나와 호흡하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이상 남은 인생을 가족들이나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보면 고통과 아픔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한 과정이라고 여기어 진다.

지난 일들은 기억으로 남아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진다. 대개는 많은 기억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금방 잊어버리게 되지만 어떤 일은 시간이 흘러도 어제 겪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나의 기억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은 현실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에 마약과 함께 살아온 악몽 같은 나날들은 나 스스로 굳은 의지로 이겨냄으로써 새

로운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할 것이며 작은 곳에 눈을 파느라고 큰일을 절대로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번 내 자신이 마약과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세상의 낙오자란 것을 잘 알기에 어디에서건 항상 마음을 가다듬을 것이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것이다.

못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가족들의 기대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과 우리 가족을 파괴시키고 아프게 했던 해충 같은 마약에서 이젠 꼭 훌훌 털고 일어설 것이다.

또한 나의 빈자리로 인하여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남자도 하기 힘든 노동일을 하면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아내가 '이제는 나의 몸을 나의 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던 그 모습을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고 열심히 살겠다.

세상에는 하찮은 것에 집착하여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마구 낭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또한 그 하찮은 것들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혹시 소중한 인생을 지금도 하찮은 일에 탕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번 수감 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되돌아보고자 한다.

기타 남용 물질

이 장에서 소개된 남용 물질은 현재 모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ㅇ 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

주성분은 아편계 알칼로이드의 합성물인 브롬화수산 덱스트로메토르판으로 감기, 급 · 만성 기관지염, 폐결핵, 폐렴 등에 의한 기침치료제로 사용하는 비마약성 진해제이다. 환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통상 한 번에 20개 전후를 복용하며, 사용 후 2~3시간 지나서 약효가 나타나 6-12시간 지속된다. 내성에 의해 용량이 점차 늘어 날 수 있으며, 과다 복용으로 용량이 초과되어 즉사하는 경우도 있다. 과량 사용 시에는 눈동자가 열리고, 시야가 희미해지며, 얼굴이 붉어지고, 피부가 따뜻하고 건조해지며, 입이 마르고 냄새가 나며, 삼키기 힘들어 지고, 위장기능이 약해지며,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고열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그 외에도 정신증상으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지리멸렬, 환각, 망상, 기태 행위, 의식의 변화, 섬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ㅇ 근이완제(Carisoprodol (S정))

Carisoprodol(S정)은 중추신경으로부터 작용하여 골격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과다 사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매우 드물게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S정을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억제제 및 신경안정제와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부라진 소리 등을 하게 된다.

ㅇ 누바인(Nalbuphine HCL)

누바인의 정식명칭은 날부핀 하이드로클로라이드(Nalbuphine hydrochloride)로 몰핀(Morphine)의 질항제로 진통작용과 질항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호흡억제작용제로 사용된다. 자주 사용하면 우울증, 불안감, 희열감, 환각, 흥분, 비현실감과 고혈압, 저혈압, 서맥 또는 빈맥, 피부 가려움증, 호흡억제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지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8 02) 2677-2245
- **서울특별시지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89-3 02) 581-1001
- **부산광역시지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1-4 051) 462-1022
- **대구광역시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57-3 053) 764-1207
- **인천광역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6-10 구월빌딩 B-202 032) 437-7910/4
- **광주광역시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2-8 동래빌딩 주1동 201호 062) 526-2226
- **대전광역시지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03-1 042) 628-8675/6
- **강원도지부**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62-1 033) 254-5827
- **경기도지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95-14 031) 257-7582
- **충청남도지부**
  충남 천안시 성정동 800 041) 572-2345/6
- **전라북도지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5-7 063) 232-5112
- **경상북도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1-5 053) 742-5165

정부지정 치료기관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635-890)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 055) 520-2518

국립서울병원
(143-7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3동 30-1 02) 2204-0515
국립나주병원
(520-830)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061) 330-4152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122-9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2동 산6 02) 300-8051/6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611-7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605-37 051) 507-3000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617-02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산 62-2 051) 601-7528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700-714)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62 053) 560-7453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401-074)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 318-1 032) 580-6000
인하대학교병원
(404-190)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06 032) 890-2342
광주인광정신병원
(506-45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산 66-2 062) 949-5280/1
한마음정신병원
(302-040)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513-1 042) 582-9700
큰빛병원
(680-01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50-9 052) 272-2505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의료원
(480-01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031) 828-5162
계요병원
(437-020)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280-1 031) 455-3333
용인정신병원
(449-910)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 031) 288-0128
강원대학교병원
(200-093)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7-1 033) 258-2356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361-1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 043) 279-2300

지방공사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350-8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041) 630-6281
지방공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573-300) 전북 군산시 자곡동 29-1 063) 472-5413
지방공사 전라남도 목포의료원
(530-380) 전남 목포시 용해동 133-1 061) 260-6363
지방공사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791-170)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15 054) 247-0551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660-010) 경남 진주시 중안동 4 055) 745-8000
제주대학교 병원
(690-031) 제주시 삼도1동 154 064) 750-1234
인천기독병원
(400-714)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37 032) 762-7831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 상담소

서울 080-022-5115 부산 080-522-5115 인천 080-031-5115
광주 080-767-5115 대전 080-202-5115 강원 033-254-5827
전북 080-232-5112 경기 080-257-5115 대구 053-764-1207
충남 041-572-2345 경북 053-742-5165
인터넷 홈페이지 www.drugfree.or.kr
본부대표 e-mail : drugfree@drugfree.or.kr
상담전용 e-mail : coun@drugfree.or.kr

마약류 사범 신고

검찰청 : 127 / 경찰청 : 112 / 관세청 : 125 / 국가정보원 : 111

후회와 눈물 그래도 희망이

초판 1쇄 발행 2005년 12월 23일

엮은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발행인 | 김 명 섭
편집인 | 이 재 천
기 획 | 이 한 덕
진 행 | 백 재 은
교 정 | 김 정 태
삽 화 | 김 덕 호
표지 · 본문 디자인 | 김희선

펴낸곳 | (주)비즈엠디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55-1 두원빌딩 5층
전화 | 02-793-6808
찍은곳 | 천일인쇄사
등록 | 2001년 12월 19일

이 책은 (주)비즈엠디가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니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